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책임자: 김 태 완 (전문연구원)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와 주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첫째,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시행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도시 및 농어촌 주민 3,1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방문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번 조사 항목은 2020년도부터 추진 중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정책 추진 전략에 따라 개편된 부문별 항목을 따랐다.

둘째,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 지역 유형에 따른 정책 부문별 여건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어촌 지역 유형은 읍·면으로 구분하고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연령별, 직업군별 등으로 나누어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행복감과 거주지에서의 만족감은 농어촌 지역이 높았지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시·군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 주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로 추가된 ‘주관적 건강 인식 정도’와 ‘주관적 삶의 질 향상 인식 정도’는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더 높게 조사되었다.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

이 높게 평가하였다. 마을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2020년 조사 결과에 비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 만족도 차이가 다소 줄었지만,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정도에서는 차이가 커졌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항목인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 존재 여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 더 높게 응답하였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활동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항목에서 일반적인 지역사회 활동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환경보전이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에는 도시 지역 주민이 더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대 추진 전략별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촌을 대상으로 조사한 4대 전략 부문 34개 세부 항목 중 과년도와 비교 가능한 32개 항목에서 만족도는 증가하였고, 과년도와 도·농 비교가 가능한 29개 모든 항목에서 차이 또한 줄어들었다. 총 34개 항목 중 만족도 하위 10개 항목은 교육·문화 부문 5개, 경제·일자리 부문 4개, 보건·복지 부문 1개였다. 보건·복지 부문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컸으며, 교육·문화 부문의 만족도 격차는 문화·여가 시설과 프로그램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여건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정주기반 부문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았다.

농어촌 삶의 질 관련 개별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는 농어촌 교통정책, 지역 통학 여건, 그리고 지역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과 통합교육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주민의 만족도와 의향을 물었다. 농어촌 교통 여건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알고 있지만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를 합치면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95%를 초과하였다.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만족도는 ‘통학수단 만족도’와 ‘통학안정성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이 높았지만, ‘통학시간 만족도’와 ‘통학여건 만족도’는 도시 지역이 더 높았다.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및 통합교육 관련 조사 결과는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선택되었다. 읍·면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 여건 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역형 초·중 통합 전환’, ‘인근 지역 내 도시 수준 학교로 현대화하여 통폐합’, ‘현재

학교를 유지하며 리모델링’, ‘고학년생 거점 초등학교 선정 통합 교육’, ‘고학년생 거점형 초·중 연계 통합교육 실시’ 등의 선택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학교 유희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학교도서관 확대·개방’, ‘아동 및 학생 돌봄센터’, ‘학생·청소년 생활편의시설’, ‘평생교육 활동 공간’, ‘공동체 조성 여가활동 공간’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도서관 확대·개방’을 도시 지역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의 정주 여건 만족도 격차는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격차가 심한 분야부터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문별 정주 여건에 대한 지역별 격차 발생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저밀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은 정주 여건과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유지되어온 보건의료 부문을 개선하는 것은 주민의 질병 및 건강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어촌을 읍·면 등 행정구역 구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어촌 사회는 농림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농어촌 정주 만족도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이 크고, 포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조사 항목 수정 및 추가 4

제2장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7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0

제3장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1.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12
2.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조사 결과 14
3. 정책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7

제4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개별 정책 만족도 및 의향 조사

1. 개별 정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의향 조사 개요 31
2. 개별 정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의향 조사 결과 32

제5장 응답자 특성별 정주 만족도 분석

1. 분석 개요 44
2. 전반적 만족도 45
3. 공동체 및 지역사회 53
4.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응답 비교 6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요약 79
2. 시사점 83

부록

A. 2021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85
B. 과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97

참고문헌 105

표 차례

제1장

- 〈표 1-1〉 2021년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개편 내용(일반 조사 부분) 5
- 〈표 1-2〉 2021년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개편 내용(비정기 조사 부분) 6

제2장

- 〈표 2-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일반 및 비정기 조사 부분 항목 9
- 〈표 2-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0
- 〈표 2-3〉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1

제3장

- 〈표 3-1〉 최근 3년 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12
- 〈표 3-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신규 추가 항목) 13
- 〈표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14
- 〈표 3-4〉 지역사회 활동 정도와 활동 참여 의향 15
- 〈표 3-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18
- 〈표 3-6〉 보건·복지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9
- 〈표 3-7〉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0
- 〈표 3-8〉 정주기반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1
- 〈표 3-9〉 경제·일자리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3
- 〈표 3-10〉 4대 부문 세부 항목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25
- 〈표 3-1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비교 28
- 〈표 3-1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범주별 순위 및 중요도 30

제4장

- 〈표 4-1〉 교통취약지역 택시형 지원사업 인지도와 이용경험 33
- 〈표 4-2〉 교통취약지역 중형버스·승합차형 지원사업 인지도와 이용경험 34

제5장

〈표 5-1〉 ‘행복감’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45
〈표 5-2〉 ‘행복감’ 항목의 연령별 비교	46
〈표 5-3〉 ‘행복감’ 항목의 직업별 비교	46
〈표 5-4〉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47
〈표 5-5〉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47
〈표 5-6〉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항목의 직업별 비교	48
〈표 5-7〉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짐’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49
〈표 5-8〉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짐’ 항목의 연령별 비교	49
〈표 5-9〉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짐’ 항목의 직업별 비교	50
〈표 5-10〉 ‘마을 발전 전망’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50
〈표 5-11〉 ‘마을 발전 전망’(전반적 만족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51
〈표 5-12〉 ‘마을 발전 전망’(전반적 만족도) 항목의 직업별 비교	51
〈표 5-13〉 ‘시·군 발전 전망’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52
〈표 5-14〉 ‘시·군 발전 전망’ 항목의 연령별 비교	52
〈표 5-15〉 ‘시·군 발전 전망’ 항목의 직업별 비교	53
〈표 5-16〉 ‘대인관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54
〈표 5-17〉 ‘대인관계’ 항목의 연령별 비교	54
〈표 5-18〉 ‘대인관계’ 항목의 직업별 비교	55
〈표 5-19〉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존재’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55
〈표 5-2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존재’ 항목의 연령별 비교	56
〈표 5-2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존재’ 항목의 직업별 비교	56
〈표 5-22〉 ‘정책 신뢰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57
〈표 5-23〉 ‘정책 신뢰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57
〈표 5-24〉 ‘정책 신뢰도’ 항목의 직업별 비교	58
〈표 5-25〉 ‘지역사회 활동 정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59

〈표 5-26〉 ‘지역사회 활동 정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59
〈표 5-27〉 ‘지역사회 활동 정도’ 항목의 직업별 비교	60
〈표 5-28〉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60
〈표 5-29〉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항목의 연령별 비교 ..	61
〈표 5-30〉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항목의 직업별 비교 ..	61
〈표 5-31〉 보건·복지 부문 지역 유형별 응답 비교	64
〈표 5-32〉 보건·복지 부문 연령별 응답 비교	64
〈표 5-33〉 보건·복지 부문 직업별 응답 비교	65
〈표 5-34〉 교육·문화 부문 지역 유형별 응답 비교	67
〈표 5-35〉 교육·문화 부문 연령별 응답 비교	67
〈표 5-36〉 교육·문화 부문 직업별 응답 비교	68
〈표 5-37〉 정주생활기반 부문 지역 유형별 응답 비교	71
〈표 5-38〉 정주생활기반 부문 연령별 응답 비교	71
〈표 5-39〉 정주생활기반 부문 직업별 응답 비교	72
〈표 5-40〉 경제·일자리 부문 지역 유형별 응답 비교	74
〈표 5-41〉 경제·일자리 부문 연령별 응답 비교	74
〈표 5-42〉 경제·일자리 부문 직업별 응답 비교	75
〈표 5-43〉 부문별 정책 중요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76
〈표 5-44〉 부문별 정책 중요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77
〈표 5-45〉 부문별 정책 중요도 항목의 직업별 비교	78

제2장

〈그림 2-1〉 조사 방법 및 개요 8

제3장

〈그림 3-1〉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13

〈그림 3-2〉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15

〈그림 3-3〉 지역사회 활동 정도와 활동 참여 의향 16

〈그림 3-4〉 보건·복지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9

〈그림 3-5〉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0

〈그림 3-6〉 정주기반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2

〈그림 3-7〉 경제·일자리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4

〈그림 3-8〉 5년간 부문별 정주 만족도 변화 추이 26

〈그림 3-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범주별 중요도 30

제4장

〈그림 4-1〉 농어촌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사업 인지도와 이용 여부 34

〈그림 4-2〉 영유아보육기관 및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응답 36

〈그림 4-3〉 자녀가 소속된 영유아보육기관 및 초·중·고교에 대한 응답 37

〈그림 4-4〉 자녀가 소속된 보육·교육 기관 위치 38

〈그림 4-5〉 자녀의 통학 수단 39

〈그림 4-6〉 자녀의 통학 시간 40

〈그림 4-7〉 자녀의 통학 여건에 대한 만족도 및 학교 교육 여건의 문제점 41

〈그림 4-8〉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 여건 변화를 위한 정책 및 학교 유희시설 활용방안 43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 수립된 5년 단위 계획이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동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기구로, 국무조정실 총괄 이하 21개 부처·청으로 구성된 범부처 조직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수준을 점검·분석해야 하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된 조사다.

-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는 조사는 2012년부터 매년 수행되어 왔다.
-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0개, 20개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지역별 층화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는 조사로 구성되었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고자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 2021년도 조사는 2020년도에 시작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로써, 조사 문항이 일부 개편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로 기능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후,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한다.

- 먼저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행복도,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만족도, 주관적 건강인지 정도, 과거에 비해 삶의 질 향상 정도,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시·군 발전 전망으로 이루어졌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 부문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로 나누어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한다.
-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정책의 주요 분야에 대해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파악한다. 4대 부문 추진 전략은 삶의 질 정책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주거환경, 교육, 환경·경관, 경제·일자리의 7개 분야로 나누었다.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특성 분석

○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주 만족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 삶의 질 기본계획 정책 부문별 여건 만족도 차이 등을 살펴본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연령대, 직업군 등으로 구분하여 정주 여건 만족도를 분석한다.
- 농어촌 지역을 읍·면으로 나누어 주민이 느끼는 정주 여건 만족도의 격차를 살펴본다.

3. 조사 항목 수정 및 추가

- 정주 만족도 조사의 주요 부문과 틀을 유지하되 변화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일반 조사 부분과 비정기 조사 부분으로 나누었다.
 - 일반 조사 부분은 과년도에 조사되어온 문항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2020년도에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새로운 정책 추진 전략 수립에 따라 조정된 문항으로 이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 비정기 조사 부분은 정기적으로 조사될 필요는 없지만 시의성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농어촌 정주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 중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보육기관 및 초·중·고교 통학 여건, 소규모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및 교육 여건 개선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매년 수행되는 조사로서 기존과 연속성이 있는 정책 등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고려하여 기존의 11점 척도(0~10점)를 유지하였다.

3.1.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의 일반 조사 부분 수정

- 농어촌 정주 만족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과년도 조사와 연속되는 문항을 일반 조사 부분으로 구성하고 일부 수정하였다<표1-1>.
 - 주관적 웰빙지수 부문을 유사한 성격의 전반적인 만족도 부문으로 통합하였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문항을 강화하였다.
 - 다른 통계¹⁾와 중복된다고 평가되는 귀농·귀촌 여부, 이주 의향 조사 문항을 삭제하였다.
 - 응답자 개인 및 가구특성 부문에 가구원 구성 항목을 추가하였다.

1) 「귀농·귀촌인통계」 등 유사 항목을 포함하는 통계 조사

〈표 1-1〉 2021년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개편 내용(일반 조사 부분)

구분	개편 내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주관적 웰빙지수 부문을 통합 - 기존 [주관적 웰빙지수](5문항)과 [전반적인 만족도](4문항)를 [주관적 웰빙지수](6문항)으로 통합	
	1. 나는 지금 행복하다	①----⑩
	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⑩
	3. 나는 지금 건강하다.	①----⑩
	4. 나는 지금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①----⑩
	5.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⑩
	6.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⑩
공동체 및 지역사회	○ 문항 추가: 3문항 -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활동(행사·모임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선생님께서는 지역의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척도 문항 추가	
	자신의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낙심하여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①----⑩
4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문항 추가: 2문항 - [보건·복지] 여성 및 다문화 주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 [정주기반] 마을 진입로와 마을안길에 소방차, 앰블런스 등 응급차량이 접근하기 용이하다. ○ 문항 삭제: 1 문항 - [교육문화]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주 의향 및 귀농귀촌 여부	○ 삭제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 문항 추가: 1문항 - 귀댁에서 동거하는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3.2.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에 비정기 조사 부분 추가

○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성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비정기 조사 부분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 농어촌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경험 여부를 각 1문항씩 추가하였다.
- 영유아 보육기관과 초·중·고교 통학 여건과 통학 수단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7문항 추가하였다.
-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주민 의견을 묻는 2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1-2〉 2021년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개편 내용(비정기 조사 부분)

구분	개편 내용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 사업	○ 농어촌 지역의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택시비 지원 사업 인지 및 이용 여부 ○ 농어촌 지역의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중형버스·승합차를 이용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 인지 및 이용 여부
영유아 보육기관 및 초중고교 통학 여건·수단	○ 영유아보육기관 또는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지 여부 ○ 자녀가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의 위치 ○ 자녀가 이용하는 통학수단과 통학수단에 대한 만족도 ○ 통학에 필요한 시간과 만족도 ○ 통학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인 통학 여건에 대한 만족도 ○ 거주 지역의 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문제점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	○ 농어촌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 여건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학생 수 감소로 학교에 유휴시설이 생겼을 때 지역사회 아동·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 방안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Online-Survey)와 방문 면접 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함께 진행하였다.
 - 2021년 9월 27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 6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였다.
-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응답자 표본을 추출했다.
 - 본 조사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도시 지역은 700명, 농어촌 지역은 2,000명을 할당할 것을 계획하고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진행하였다.
 -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3,183명이며, 그 중 동 지역 주민 응답자는 738명, 읍·면 지역 주민 응답자는 2,445명이었다.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pm 1.74\%p$ 이다.

〈그림 2-1〉 조사 방법 및 개요

조사 대상	→	▪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수	→	▪ 총 3,183명 (동 지역 738명, 읍·면 지역 2,445명)
표본 오차	→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1.74% Point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 방문 면접 조사 (Face-to-Face Interview)
표본 추출	→	▪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 2021. 09. 27. ~ 2021. 11. 05.

- 조사 항목은 과년도 조사내용과 연속적인 일반 조사 부분과 이번 조사에 신규로 추가된 비정기 조사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표 2-1〉
- 일반 조사 부분은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정책 전략별 여건 만족도, 정주 여건 분야별 정책 중요도로 구성되었다.
 -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으로는 행복감, 거주 지역에서의 만족도,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 그리고 마을과 시·군 발전 전망 인식을 측정하였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조사 항목에서는 마을 및 지역(시·군 또는 읍·면) 구성원으로 소속감, 이웃 주민과 원만한 관계,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 유무,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부터 적용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에 따라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다.
 - 만족도를 묻는 각 항목은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여, 일부 항목에서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부문별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 비정기 조사 부분은 농어촌형 교통정책, 자녀의 보육·교육 기관 통학 여건에 대한 만족도, 농어촌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농어촌형 교통정책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 자녀가 영유아 보육기관 또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집과 보육·교육 기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통학 방법은 무엇인지,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전반적인 통학 여건과 안전성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거주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물었다.

- 농어촌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육 여건 변화에 대한 의향 조사는 최근 인구변화로 초등학교에 유희시설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과 아동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학교당 초등학생 수가 적정 수준 이하로 줄어드는 지역에서 거점 초등학교 또는 초·중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2-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부문	구분	세부 항목
일반 조사 부분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 행복감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 ○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정도 및 가능성 인식
	공동체 및 지역사회	○ 마을 및 지역(시·군 또는 읍·면) 구성원으로 소속감 ○ 이웃 주민과 원만한 관계 ○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 유무 ○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략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 ²⁾ 별 6~11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 분야별 정책 중요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개 분야 정책 중요도 11점 척도(0-10점) - 보건·의료,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복지,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비정기 조사 부분	농어촌 교통정책	○ 농어촌 교통정책(택시/버스형)의 인지·경험 여부
	자녀의 통학여건 만족도	○ 보육·교육 기관까지 통학 거리 및 시간에 대한 안전성과 만족도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방안	○ 농어촌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방안 및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선호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4개 추진 전략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2>와 같다.

<표 2-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183	100%	전체		3,183	100%
도시 농어촌	도시(동)	738	23.2%	교육수준	무학	74	2.3%
	농어촌(읍·면)	2,445	76.8%		초졸·중졸	321	10.1%
거주지역	서울	173	5.4%	교육수준	고졸	833	26.2%
	인천·경기	658	20.7%		대졸	1,733	54.4%
	대전·충청	601	18.9%		대학원 이상	222	7.0%
	광주·전라	444	13.9%	주택형태	단독주택	1,203	37.8%
	대구·경북	482	15.1%		다가구주택(연립/빌라)	359	11.3%
	부산·울산·경남	573	18.0%		아파트	1,568	49.3%
	강원·제주	252	7.9%		비거주용건물	41	1.3%
성별	남성	1,706	53.6%	주택형태	기타	12	0.4%
	여성	1,477	46.4%		자가	2,410	75.7%
연령대	19~29세	364	11.4%	거주형태	전월세	674	21.2%
	30대	473	14.9%		무상	76	2.4%
	40대	642	20.2%		기타	23	0.7%
	50대	710	22.3%	농림어업 종사	있다	1,096	34.4%
	60세 이상	994	31.2%		없다	2,087	65.6%
거주기간	10년 미만	1,242	39.0%	직업	사무/관리직	923	29.0%
	10~19년	671	21.1%		전문직	283	8.9%
	20~29년	503	15.8%		서비스/판매직	297	9.3%
	30~39년	220	6.9%		농림어업	642	20.2%
	40년 이상	547	17.2%		생산/기능/노무직	235	7.4%
혼인상태	기혼	2,394	75.2%		주부	368	11.6%
	미혼	789	24.8%		학생	69	2.2%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289	9.1%	퇴직	90	2.8%	
	1,000만 원대	359	11.3%	무직/기타	276	8.7%	
	2,000만 원대	518	16.3%	가구구성	독신가구(미혼)	321	10.1%
	3,000만 원대	601	18.9%		1인가구(기혼)	312	9.8%
	4,000만 원 이상	1,416	44.5%		다세대가구	2,550	8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 농어촌 주민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3>과 같다.

<표 2-3>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445	100.0%	전체		2,445	100.0%	
읍·면	읍	1,196	48.9%	교육수준	무학	74	3.0%	
	면	1,249	51.1%		초졸·중졸	317	13.0%	
거주지역	서울	0	0.0%		고졸	727	29.7%	
	인천·경기	408	16.7%		대졸	1,198	49.0%	
	대전·충청	536	21.9%		대학원 이상	129	5.3%	
	광주·전라	382	15.6%		주택형태	단독주택	1,138	46.5%
	대구·경북	424	17.3%			다가구주택(연립/빌라)	235	9.6%
	부산·울산·경남	467	19.1%			아파트	1,025	41.9%
	강원·제주	228	9.3%			비거주용건물	38	1.6%
성별	남성	1,242	50.8%			기타	9	0.4%
	여성	1,203	49.2%	자가		1,888	77.2%	
연령대	19~29세	240	9.8%	거주형태		전월세	468	19.1%
	30대	349	14.3%		무상	70	2.9%	
	40대	495	20.2%		기타	19	0.8%	
	50대	561	22.9%		농림어업 종사	있다	1,025	41.9%
	60세 이상	800	32.7%	없다		1,420	58.1%	
거주기간	10년 미만	934	38.2%	직업	사무/관리직	557	22.8%	
	10~19년	479	19.6%		전문직	205	8.4%	
	20~29년	345	14.1%		서비스/판매직	241	9.9%	
	30~39년	173	7.1%		농림어업	638	26.1%	
	40년 이상	514	21.0%		생산/기능/노무직	192	7.9%	
혼인상태	기혼	1,875	76.7%		주부	297	12.1%	
	미혼	570	23.3%		학생	44	1.8%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239	9.8%		퇴직	52	2.1%	
	1,000만 원대	323	13.2%		무직/기타	219	9.0%	
	2,000만 원대	434	17.8%		가구구성	독신가구(미혼)	224	9.2%
	3,000만 원대	465	19.0%	1인가구(기혼)		268	11.0%	
	4,000만 원 이상	984	40.2%	다세대가구		1,953	79.9%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1.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중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도시 주민에 비해 높지만,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감’에 대한 점수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상승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은 도시 지역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작년에 비해 모두 상승폭이 같았지만 ‘마을 발전 전망’의 농어촌 지역 상승 폭이 좀더 높았다.

〈표 3-1〉 최근 3년 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11점 척도)

구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19	'20	'21	'19	'20	'21	'19	'20	'21	'19	'20	'21
도시지역(동)	5.7	5.5	6.2	6.0	5.8	6.4	6.2	6.2	6.8	6.3	6.3	6.9
농어촌지역(읍·면)	6.4	6.2	6.6	6.4	6.3	6.7	6.3	5.7	6.5	6.4	6.0	6.6
도농차이(농촌-도시)	0.7	0.7	0.4	0.4	0.5	0.3	0.1	-0.5	-0.3	0.1	-0.3	-0.3

주: 모든 항목에서 지역별·시기별('20·'21)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올해 새로 추가된 주관적 건강 인식·삶의 질 평가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이 더 높았다.

-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는 ‘주관적 건강 인식’보다 ‘주관적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좀더 컸다.

〈표 3-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신규 추가 항목)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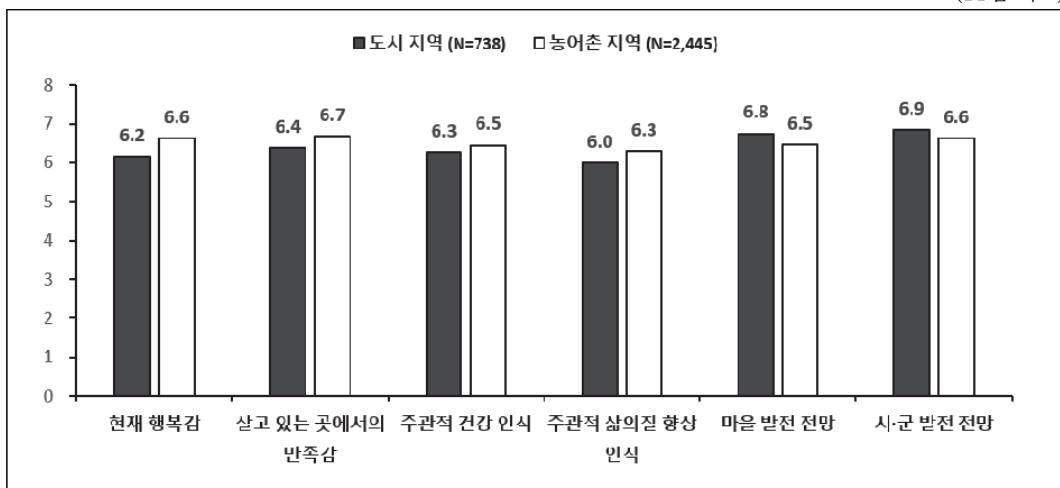
구분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삶의 질 향상 인식
	'21	'21
도시지역(동)	6.3	6.0
농어촌지역(읍·면)	6.5	6.3
도농차이 (농촌-도시)	0.2	0.3

주: ‘주관적 삶의 질 향상 인식’ 항목은 도·농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1〉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11점 척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조사 결과

- 작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문항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등을 묻는다.
- 지역에 대한 소속감, 이웃과 관계,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거주 지역의 정책 신뢰도를 묻는 다섯 개의 문항에서 모두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높다.
 -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두 지역의 점수 차이가 0.7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친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이웃과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농어촌은 도시보다 0.6점이 높았다. 이웃과 관계는 응답자가 이웃 또는 지역 주민과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문항이다.
 -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시·군 또는 읍·면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점수도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응답이 더 높았다. 앞서 살펴본 문항들과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훨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신뢰도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농어촌 주민의 정책 신뢰도가 도시 주민보다 0.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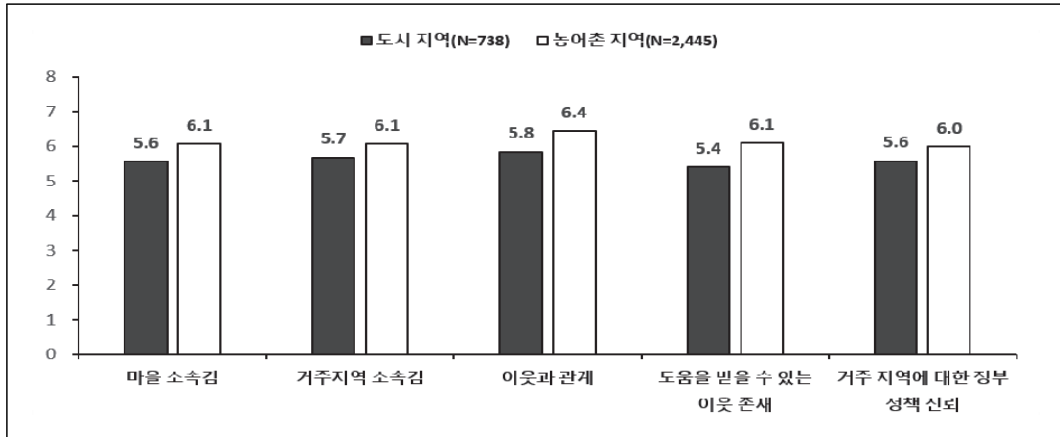
구분	마을 소속감		지역 소속감		이웃과 관계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 존재 여부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도시지역(동)	5.2	5.6	5.3	5.7	5.4	5.8	-	5.4	5.3	5.6
농어촌지역(읍·면)	5.9	6.1	5.9	6.1	6.2	6.4	-	6.1	5.4	6.0
도농차이 (농촌-도시)	0.7	0.5	0.6	0.4	0.8	0.6	-	0.7	0.1	0.4

주: 모든 항목에서 지역별·시기별('20-'21)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2〉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11점 척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지역 사회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설정한 의제인 지역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민 비율은 농어촌 지역(30.9%)이 , 도시 지역 (23.5%)에 비해 높았다.
- 지역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주민 비율은 도시 지역(63.3%)이 농어촌 지역(55.3%)보다 높았다.
- 농어촌 지역은 농어업 생산 활동 등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조직되는 활동이 많아 주민 들의 참여도가 도시 지역에 비해 높지만,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주제는 생활과 직접 연관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고 추정된다.

〈표 3-4〉 지역사회 활동 정도와 활동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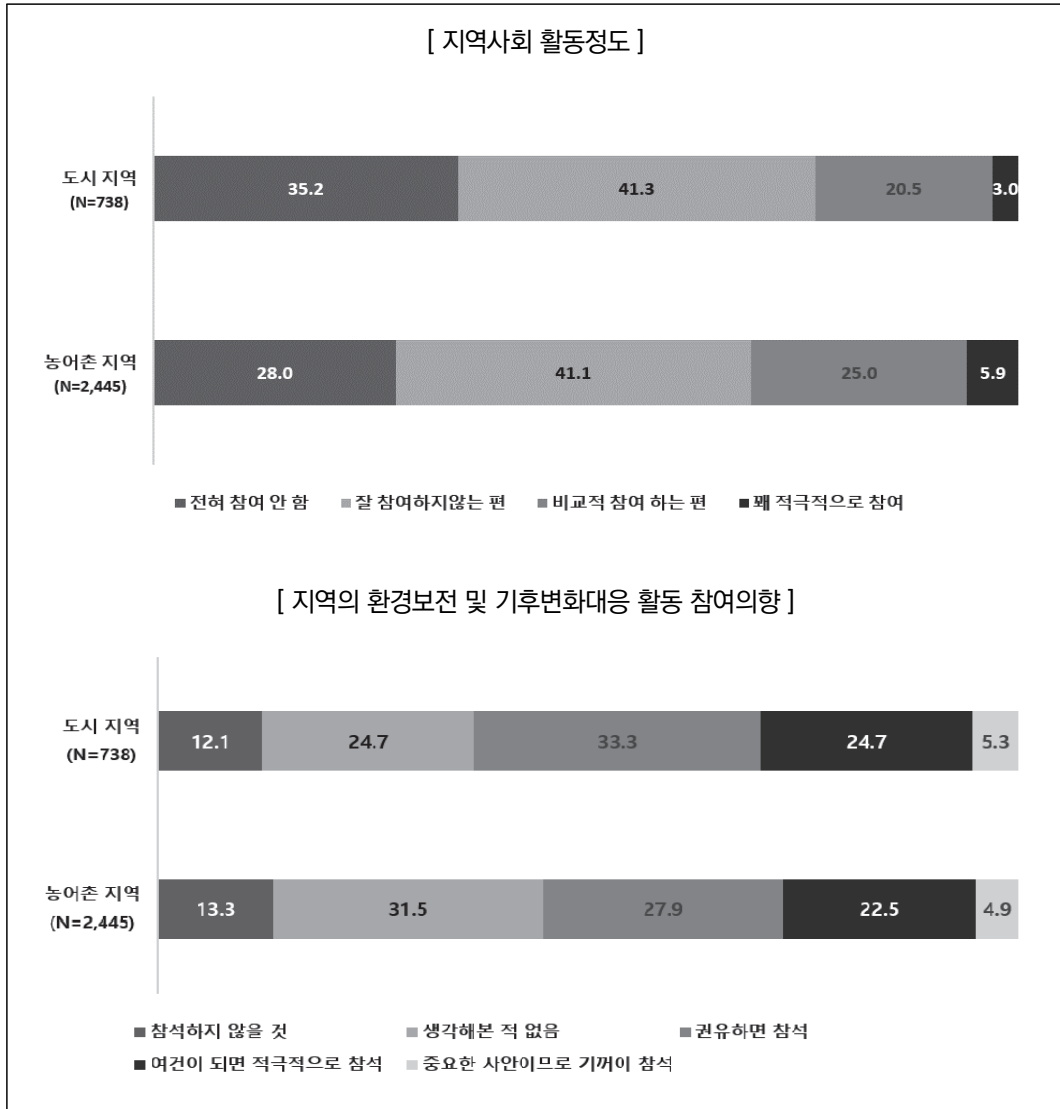
(%)

구분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불참		참여		불참	생각해본 적 없음	참여		
	전혀 불참	소극적 참여	비교적 참여	적극 참여			권유시 참여	가능한 참여	적극 참여
도시지역(동)	35.2	41.3	20.5	3.0	12.1	24.7	33.3	24.7	5.3
농어촌지역(읍·면)	28.0	41.1	25.0	5.9	13.3	31.5	27.9	22.5	4.9
도농차이(농촌-도시)	-7.2	-0.2	4.5	2.9	1.2	6.8	-5.4	-2.2	-0.4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3〉 지역사회 활동 정도와 활동 참여 의향

(11점 척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 정책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의 각 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해 각각 설문하였다.

- 정책 부문별 만족도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로 구성하였다.
- 다만 정책 분야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4개 부문으로 설문하기에 다소 포괄적이라고 판단하여, 보건의료,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복지,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응답자가 평가하는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대 전략별 만족도 비교

○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의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농어촌 주민은 전반적으로 도시 주민보다 정주 여건을 열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순서로 모든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낮았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0.8점 차이가 났다.
- 특히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1.2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보건·복지 부문은 작년 조사의 1.6점 차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도·농 만족도 격차가 가장 컸다. 이 부문은 건강·질병 관리 뿐만 아니라 돌봄, 취약계층 지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정주기반 부문으로 6.4점이며, 경제·일자리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5.3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도·농 격차는 가장 작았다.

- 교육·문화와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 작년보다 경제·일자리 부문의 농어촌 지역 만족도 점수는 도시 지역과 차이가 줄었는데, 도시 지역 만족도는 비슷했지만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표 3-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11점 척도)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20	'21	'20	'21	'20	'21
보건·복지	6.8	7.0	5.2	5.8	-1.6	-1.2
교육·문화	6.1	6.4	4.8	5.4	-1.3	-1.0
정주기반	6.9	7.1	5.9	6.4	-1.0	-0.7
경제·일자리	5.5	5.6	4.6	5.3	-0.9	-0.3
전체 평균	6.3	6.5	5.1	5.7	-1.2	-0.8

주: 2020년도부터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으로 개편되었음.
연도별 평균 비교 시, 농어촌 지역 모든 부문 유의미한 차이(p<0.01) / 도시 지역 '정주기반'(p<0.01), '보건·복지'와 '교육·문화'(p<0.05)

지역별 평균('21) 비교 시, 모든 부문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 '경제·일자리'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2. 세부 항목별 만족도 비교

□ 보건·복지 부문

○ 보건·복지 부문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주민보다 낮았다.

-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분만 의료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범위'였으며, '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 '분만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가 1.8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만의료와 관계된 젊은 연령층은 중요한 농어촌 유입인구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었으며('농어작업 안전' 제외),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분만 의료 서비스'였다.

-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 중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높았는데 '의료 서비스 범위'와 '의료 서비스 수준' 만족도가 낮은 것과 종합해보면,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은 가까이 있으나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조사부터 추가된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지원’ 항목은 ‘취약계층 복지지원’ 항목과 유사한 점수였지만 조금 더 낮았다.

- 농어촌 지역에서 조금 더 낮게 평가하였다.

〈표 3-6〉 보건·복지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세부 항목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돌봄 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지원	농어작업 안전	전체 평균
도시 지역	7.7	7.3	7.2	7.0	7.3	6.8	6.7	6.6	6.5	5.5	7.0
농어촌 지역	6.3	5.6	5.7	5.2	5.9	6.0	5.9	6.1	5.9	7.0	5.8
도·농차이 (농어촌-도시)	-1.4	-1.7	-1.5	-1.8	-1.4	-0.8	-0.8	-0.5	-0.6	1.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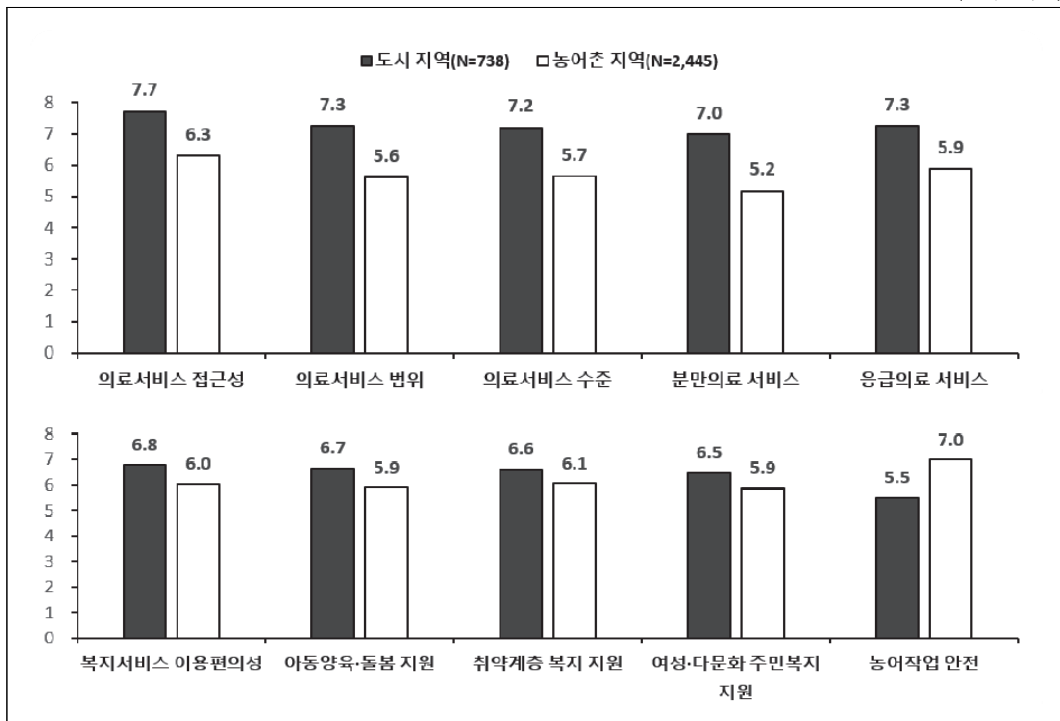
주: 도시·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균형있는 비교를 위해 ‘농어작업 안전’ 문항을 제외하고 전체 평균을 계산함.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농어작업 안전’ 항목 제외)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4〉 보건·복지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부문

○ 교육·문화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도·농 간 만족도 평균 점수 차이는 1.0점이었으며, '문화·여가 시설' 항목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문화 공동체 활동' 항목이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 문화·여가 시설과 프로그램 항목에서 도·농 차이가 컸는데, 농어촌 주민이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이 도시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에서 '공교육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교육 관련 항목의 만족도가 문화 관련 항목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 3-7〉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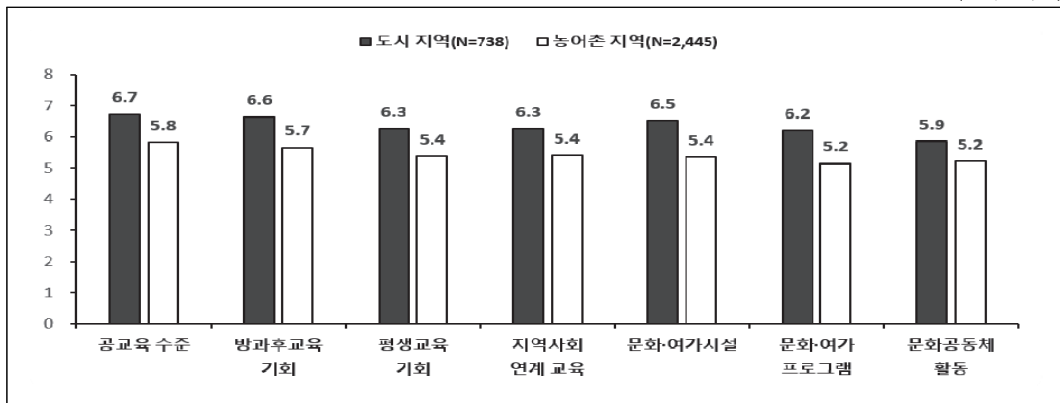
세부 항목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전체 평균
도시 지역	6.7	6.6	6.3	6.3	6.5	6.2	5.9	6.4
농어촌 지역	5.8	5.7	5.4	5.4	5.4	5.2	5.2	5.4
도 농차이(농어촌-도시)	-0.9	-0.9	-0.9	-0.9	-1.1	-1.0	-0.7	-1.0

주: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5〉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부문

○ 정주기반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교통’ 항목이 가장 큰 도·농 만족도 차이(1.6)를 보였으며, ‘생활 서비스’(1.4)와 ‘생활 인프라’(1.3) 항목이 뒤를 이었다.
-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유사한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범죄안전’(0.2)이었다.
- 정주기반 부문의 도시와 농어촌 주민 만족도 차이는 평균 0.7점이었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이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여건은 유일하게 5점대 만족도를 보인 ‘대중교통(5.7)’이었으며, 가장 높게 평가하는 항목은 ‘통신시설’(6.7), ‘자연재해 안전’(6.7), ‘범죄안전’(6.7)이었다.

- ‘대중교통’ 항목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밀돌고 있었다. 이 항목은 작년 조사뿐만 아니라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주생활기반’ 부문에 대한 조사에서도 꾸준히 농어촌 지역에서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아온 부분으로 농어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생활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항목도 농어촌 만족도가 높지 않고 도시와 격차가 컸는데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3-8〉 정주기반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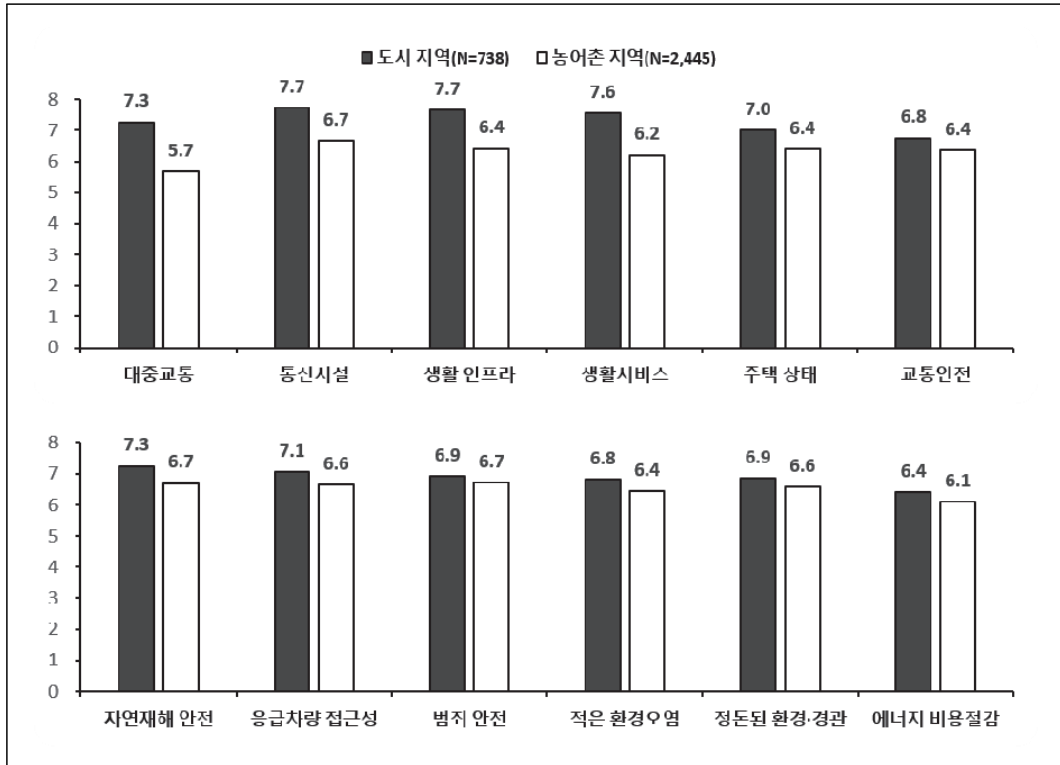
세부 항목	대중 교통	통신 시설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주택 상태	교통 안전	자연재 해 안전	응급 차량 접근성	범죄 안전	적은 환경 오염	정돈된 환경· 경관	에너지 비용 절감	전체 평균
도시 지역	7.3	7.7	7.7	7.6	7.0	6.8	7.3	7.1	6.9	6.8	6.9	6.4	7.1
농어촌 지역	5.7	6.7	6.4	6.2	6.4	6.4	6.7	6.6	6.7	6.4	6.6	6.1	6.4
도·농차이 (농어촌-도시)	-1.6	-1.0	-1.3	-1.4	-0.6	-0.4	-0.6	-0.5	-0.2	-0.4	-0.3	-0.3	-0.7

주: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범죄 안전’ 항목은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6〉 정주기반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부문

○ 경제·일자리 부문은 4부문 중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부문 평균 만족도는 농어촌(5.3)과 도시(5.6)가 전 부문에서 가장 낮았지만 도시와 농어촌 만족도 차이는 가장 작았다(-0.3).
- 경제·일자리 부문은 주민이 생활을 위한 소득 창출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들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소득 기회’ 항목은 부문 내에서 도·농 만족도 차이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이 가장 낮게 평가한 항목이다.

- 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나 일거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 기회가 많지 않다고 농어

촌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와 비교해서도 소득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 도시와 농어촌의 경제·일자리 부문 여건이 달라서 각 지역에 특화된 항목을 제외하고 두 지역 모두에서 조사된 공통 항목에 대해서만 평균을 계산하였다.

○ 도시나 농어촌 중 한 쪽에서만 조사된 항목은 ‘농외소득’, ‘여성 농업인·다문화 주민 일자리’, ‘농어촌 관광’ 항목이 있다.

- 농어촌 지역에서 조사된 항목 중 ‘농외소득’(5.6)이 가장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특산품이나 농수산물 가공·판매, 직매장 운영 등을 통한 농외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도시 지역에서 조사된 항목 중 ‘농어촌 관광’(5.3)은 도시 지역 평균(5.6)보다 낮았으며, ‘여성 농업인·다문화 주민 일자리 지원’(5.4)는 농어촌 지역 평균(5.3)보다 높았다.

〈표 3-9〉 경제·일자리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세부 항목	소득 기회	경제활동 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농외소득	여성 농업인·다문화 주민일자리 지원	농어촌관광	전체 평균
도시 지역	5.7	5.6	5.6	-	-	5.3	5.6
농어촌 지역	5.2	5.3	5.3	5.6	5.4	-	5.3
도 농차이 (농어촌-도시)	-0.5	-0.3	-0.2	-	-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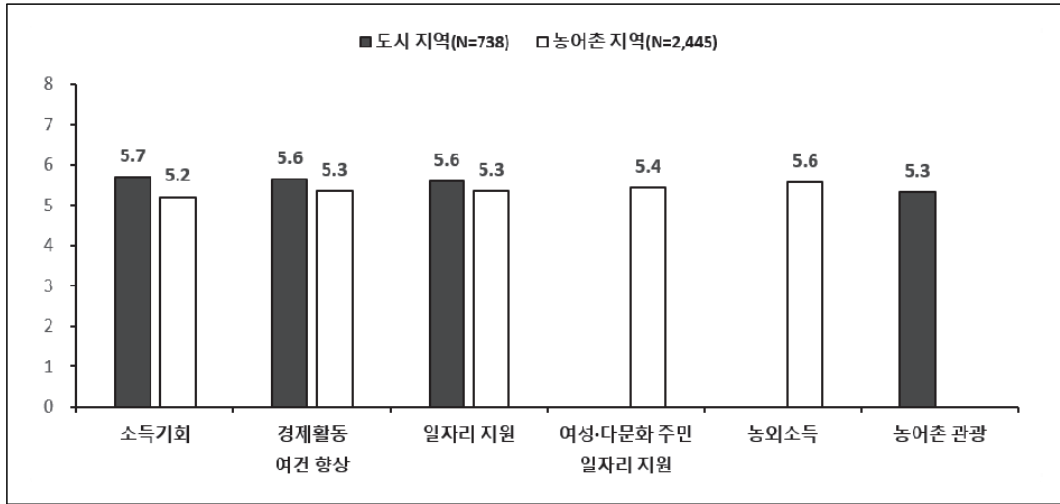
주: 균형있는 비교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조사된 문항을 대상으로 전체 평균을 계산함.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7〉 경제·일자리 부문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4대 전략 부문 전체 세부 항목 비교

○ 농어촌을 대상으로 조사한 4대 전략 부문 34개 세부 항목 중 과년도와 비교 가능한 32개 항목에서 만족도는 증가하였고, 과년도와 도·농 비교가 가능한 29개 모든 항목에서 차이 또한 줄어들었다.

- 비교 가능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증가하고 도·농 차이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020년도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020년도는 COVID-19 등 사회·경제적 충격이 크게 작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원인 분석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표 3-10〉 4대 부문 세부 항목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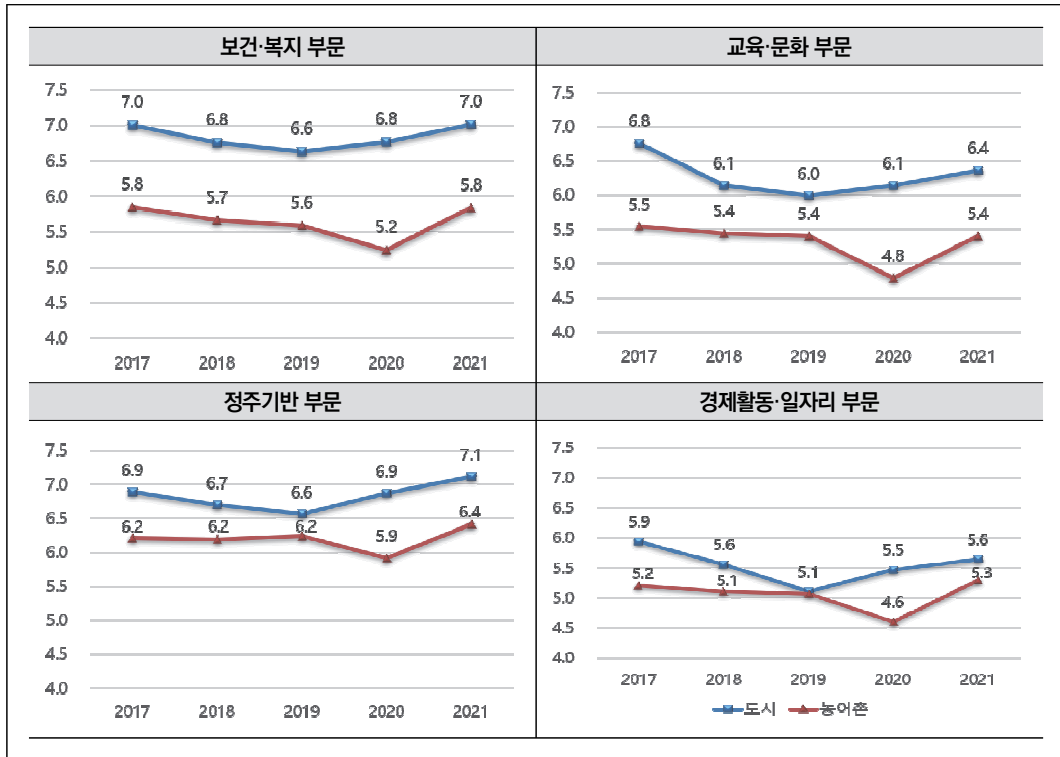
부문	세부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만족도 증감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6.1	5.7	6.3	0.6
	의료 서비스 범위	-	5.0	5.6	0.6
	의료 서비스 수준	5.6	5.1	5.7	0.6
	분만의료 서비스	5.1	4.4	5.2	0.8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6	5.2	5.9	0.7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5	5.5	6.0	0.5
	아동 양육·돌봄 지원	5.6	5.4	5.9	0.5
	취약계층 복지지원	5.6	5.6	6.1	0.5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지원	-	-	5.9	-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 대상)	6.3	5.9	7.0	1.1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5.8	5.2	5.8	0.6
	방과 후 교육 기회	5.7	5.1	5.7	0.6
	평생교육 기회	5.4	4.7	5.4	0.7
	지역사회 연계 교육	5.2	4.7	5.4	0.7
	문화 여가 시설	5.3	4.6	5.4	0.8
	문화 여가 프로그램	5.1	4.4	5.2	0.8
	문화 공동체 활동	5.1	4.7	5.2	0.5
정주기반	대중교통	5.7	5.2	5.7	0.5
	통신시설	6.7	6.1	6.7	0.6
	생활 인프라	6.3	5.9	6.4	0.5
	생활 서비스	6.1	5.6	6.2	0.6
	주택 상태	6.6	5.9	6.4	0.5
	교통안전	6.3	6.0	6.4	0.4
	자연재해 안전	6.7	6.2	6.7	0.5
	응급 차량 접근성	-	-	6.6	-
	범죄 안전	6.8	6.4	6.7	0.3
	적은 환경오염	6.0	6.1	6.4	0.3
	정돈된 환경·경관	6.3	6.2	6.6	0.4
	에너지 비용 절감	5.4	5.4	6.1	0.7
경제·일자리	소득 기회	5.1	4.5	5.2	0.7
	경제활동 여건 향상	5.1	4.6	5.3	0.7
	농외소득(농촌만)	5.1	5.0	5.6	0.6
	일자리 지원	5.0	4.7	5.3	0.6
	여성 농업인·다문화 주민 일자리 지원 (농촌만)	-	4.8	5.4	0.6

주: 2019년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제3차 삶의질기본계획에 따른 항목으로 결과 비교를 위해 세부 항목을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재배열하였음. 만족도 증감 수치는 2021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기준임.

모든 항목에서 연도별('20-'21)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8〉 5년간 부문별 정주 만족도 변화 추이



주: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4대 부문으로 개편된 2020년도 이전에 조사된 결과는 유관 부문으로 이동하여 변화 추이 분석. 2017년도 결과는 10점 척도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모든 항목 중 작년 조사에 이어 가장 낮은 만족도(5.2)를 보인 항목은 보건·복지 부문의 '분만의료 서비스', 교육·문화 부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문화 공동체 활동', 경제·일자리 부문의 '소득 기회'이었다.

- 총 34개 항목 중 만족도 하위 10개 항목은 교육·문화 부문 5개, 경제·일자리 부문 4개, 보건·복지 부문 1개였다.
-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5.2), '문화 공동체 활동'(5.2), '문화여가 시설'(5.4), '지역사회 연계 교육'(5.4), '평생교육 기회'(5.4)이 있었다.
-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소득 기회'(5.2), '경제여건 향상'(5.3), '일자리 지원'(5.3), '여성 농업인·다문화 주민 일자리 지원'(5.4)이 있었다.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분만 의료 서비스'(5.2)이 있었다.

○ 이번 조사에서 도·농간 차이가 가장 큰 10개 항목은 보건·복지 부문 5개, 정주기반 부문 4개, 교육·문화 부문 1개이었다.

- 도시에 비해 농어촌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부문은 ‘분만의료 서비스’(1.8), ‘의료서비스 범위’(1.7), ‘의료서비스 수준’(1.5),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1.4), ‘의료서비스 접근성’(1.4) 등 의료와 관계된 모든 항목이 포함되었다.
- 정주기반 부문은 ‘대중교통’(1.6), ‘생활 서비스’(1.3), ‘생활 인프라’(1.3), ‘통신시설’(1.1)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 교육·문화 부문은 ‘문화·여가 시설’(1.1) 항목이 도·농간 만족도 차이가 가장 컸다.

○ 도·농간 차이가 가장 작았던 10개 항목은 정주기반 부문 6개, 경제·일자리 부문 3개, 보건·복지 부문 1개였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범죄안전’(0.2), ‘정돈된 환경경관’(0.3), ‘에너지 비용 절감’(0.3), ‘교통안전’(0.4), ‘적은 환경오염’(0.4), ‘응급차량 접근성’(0.4) 항목이 있었다.
- 경제·일자리 부문은 ‘일자리 지원’(0.3), ‘경제여건 향상’(0.3), ‘소득 기회’(0.5) 항목이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농어작업 안전’(1.5) 항목은 유일하게 농어촌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목이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농 만족도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던 10개 항목 중 도·농간 차이가 컸던 10개 항목과 교차되는 항목은 보건·복지 부문 1개, 교육·문화 부문 1개가 있었다.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분만의료 서비스’(만족도 5.2/도·농간 차이 1.8)이 있었다.
-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여가 시설’(만족도 5.4/도·농간 차이 1.1)이 있었다.
- 만족도가 낮으면서 도시 지역과 격차가 큰 항목은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향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표 3-1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비교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 도시)	전년도 도·농간 차이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7	6.3	-1.4	-1.7
	의료 서비스 범위	7.3	5.6	-1.7	-2.1
	의료 서비스 수준	7.2	5.7	-1.5	-1.8
	분만의료 서비스	7.0	5.2	-1.8	-2.3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3	5.9	-1.4	-1.8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8	6.0	-0.8	-1.0
	아동 양육 돌봄 지원	6.7	5.9	-0.8	-0.9
	취약계층 복지지원	6.6	6.1	-0.5	-0.6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지원	6.5	5.9	-0.6	-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 대상)	5.5	7.0	1.5	-
	부문 평균	7.0	5.8	-1.2	-1.6
교육 · 문화	공교육 수준	6.7	5.8	-0.9	-1.4
	방과 후 교육 기회	6.6	5.7	-0.9	-1.4
	평생교육 기회	6.3	5.4	-0.9	-1.4
	지역사회 연계 교육	6.3	5.4	-0.9	-1.4
	문화 여가 시설	6.5	5.4	-1.1	-1.6
	문화 여가 프로그램	6.2	5.2	-1.0	-1.8
	문화 공동체 활동	5.9	5.2	-0.7	-1.0
	부문 평균	6.4	5.4	-1.0	-1.3*
정주 기반	대중교통	7.3	5.7	-1.6	-1.9
	통신시설	7.7	6.7	-1.1	-1.5
	생활 인프라	7.7	6.4	-1.3	-1.4
	생활 서비스	7.6	6.2	-1.3	-1.7
	주택 상태	7.0	6.4	-0.6	-0.8
	교통안전	6.8	6.4	-0.4	-0.5
	자연재해 안전	7.3	6.7	-0.6	-0.8
	응급 차량 접근성	7.1	6.6	-0.4	-
	범죄 안전	6.9	6.7	-0.2	-0.3
	적은 환경오염	6.8	6.4	-0.4	-0.5
	정돈된 환경·경관	6.9	6.6	-0.3	-0.4
	에너지 비용 절감	6.4	6.1	-0.3	-0.7
	부문 평균	7.1	6.4	-0.7	-1.0
경제 · 일자리	소득 기회	5.7	5.2	-0.5	-1.1
	경제여건 향상	5.6	5.3	-0.3	-0.7
	농외소득(농촌만)	-	5.6	-	-
	일자리 지원	5.6	5.3	-0.3	-0.8
	농어촌 관광	5.3	-	-	-
	여성 농업인·다문화 주민 일자리 지원 (농촌만)	-	5.4	-	-
	부문 평균	5.6	5.3	-0.4	-0.9

주: 각 부문의 평균 점수와 세부 항목의 도·농간 차이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교육·문화 부문 전년도 도·농간 차이 평균은 2020년도 '향토문화 향유' 항목을 포함한 값임.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범죄 안전'은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주요 정책 범주별 중요도 조사 결과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7개 범주로 묶고, 범주별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거환경과 환경경관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도시 지역은 보건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 농어촌과 도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주 3가지는 주거환경, 환경·경관, 보건의료로 같았다.

-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책 범주는 경제·일자리(0.2), 환경·경관(0.1)이었다.
 - 환경·경관 범주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각각 3순위, 1순위로 상위 정책 중요도를 가진다.
 - 경제·일자리 범주는 두 지역에서 하위 중요도를 가진다. 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경제·일자리 범주가 가장 낮은 중요도인 7순위였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2순위 높은 5순위였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중요도 차이를 크게 보이는 정책 범주는 보건의료와 문화·여가로 도시 지역에서 0.4점만큼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주거환경 범주는 두 지역의 중요도 점수(7.0)가 같았다.

〈표 3-1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범주별 순위 및 중요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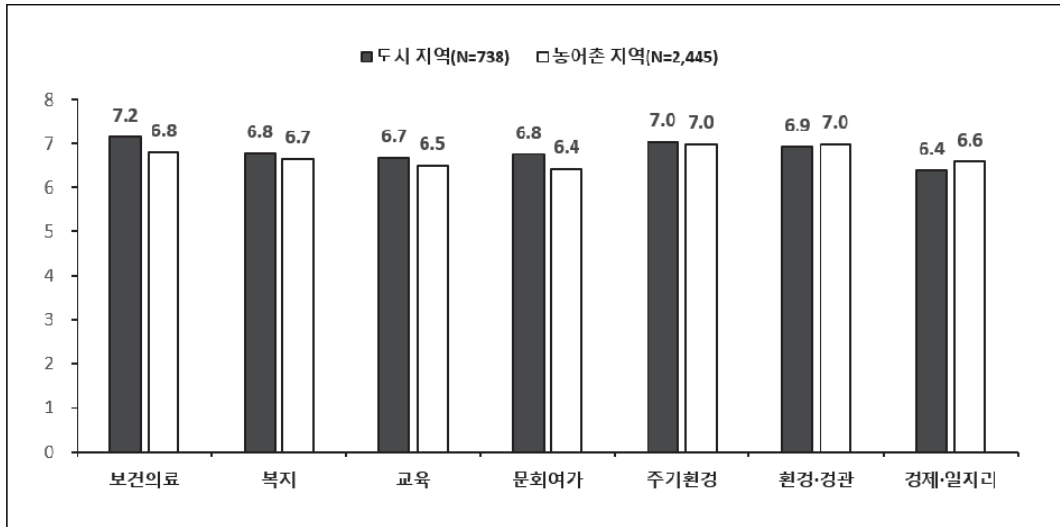
구분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주거환경	환경·경관	경제·일자리	평균
도시 지역 (n=738)	순위	1	4	6	4	2	3	7	-
	점수	7.2	6.8	6.7	6.8	7.0	6.9	6.4	6.8
농어촌 지역 (n=2,445)	순위	3	4	6	7	1	1	5	-
	점수	6.8	6.7	6.5	6.4	7.0	7.0	6.6	6.7
도·농간 차이 (농어촌-도시)	순위	2	0	0	3	-1	-2	-2	-
	점수	-0.4	-0.1	-0.2	-0.4	0.0	0.1	0.2	-0.1

주: '보건의료', '문화·여가' 도·농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범주별 중요도

(11점 척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개별 정책 만족도 및 의향 조사

1. 개별 정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의향 조사 개요

- 올해부터 도시 및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는 연속적으로 조사되어온 삶의 질 기본 계획에 따른 정책 부문별 항목을 담은 일반 조사 부분뿐만 아니라 좀더 세부적인 주민의 정주 여건과 의향을 시의성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주제별 항목으로 구성된 비정기 조사 부분이 추가되었다.
 - 일반 조사 부분에서는 삶의 질 기본계획에 속한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만족도를 측정하고 매년 변화 추이를 추적한다.
 - 비정기 조사 부분에서는 매년 측정할 필요는 없지만 삶의 질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정해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다.

- 이번 비정기 조사 부분에서는 농어촌형 교통정책 인지 및 경험 여부, 보육·교육기관 통학여건 및 만족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및 통합교육 방안을 주제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첫 번째 주제인 농어촌형 교통정책 인지 및 경험에 대한 항목은 농어촌의 교통 취약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택시형과 승합·버스형 교통지원 사업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 두 번째 주제인 보육·교육기관 통학여건 및 만족도에 대한 항목은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통학에 필요한 이동거리나 시간, 자택과 보육·교육기관의 행정 구역 위치(거주 읍·면·동에 기관이 위치 등), 현재 통학 여건에 만족하는지 조사한다.
- 세 번째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및 통합교육 방안을 주제로 한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줄어들어 생긴 초등학교 내 유휴 시설을 지역 아동 및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한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학생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복수개의 학교가 연계하여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 비정기 조사 부분에서 조사된 결과는 삶의 질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성이 필요한 배경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 이 조사 부분에서 선택된 주제들은 삶의 질 정책 추진 과정 또는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또한 이 주제들은 정책 연구와 관련되기도 하여 삶의 질 정책이 가지는 다차원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개별 정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의향 조사 결과

2.1. 교통 취약지역 농어촌형 교통 정책사업

○ 농어촌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시·군과 함께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와 중형버스·승합차를 이용한 대중교통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평가된다.

- 인구 과소화가 진행된 농어촌 마을은 도시 지역과 다르게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대중교통을 충분히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농어촌 여건에 맞게 대형버스 대신 중형버스나 승합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 대신 택시로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완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 사업 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어촌형 교통 정책사업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 농어촌 지역의 생활권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기회가 적다고 판단되는 특·광역시 동 지역 거주자를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 교통 여건 취약지역에 주민들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고 있으며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농어촌 지역(4.5%)이 도시 지역(2.8%)보다 더 높았다.

- 지원 사업을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도시 지역(51.0%)이 농어촌 지역(47.3%)에 비해 더 높았다.
- 사업을 모른다는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좀 더 높게 나왔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 교통취약지역 택시형 지원사업 인지도와 이용경험

(%)

인지도와 이용경험	도시 지역 (N=361)	농어촌 지역 (N=2,445)
잘 모른다	46.3	48.3
알고 있지만 이용 경험은 없다	51.0	47.3
알고 있고 이용 경험이 있다	2.8	4.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농어촌 교통 여건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형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기존의 노선버스나 콜택시가 운영되던 방식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알고 있으며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농어촌(3.1%)이 도시 지역(2.5%)보다 높았다.

-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을 모른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표 4-2〉 교통취약지역 중형버스·승합차형 지원사업 인지도와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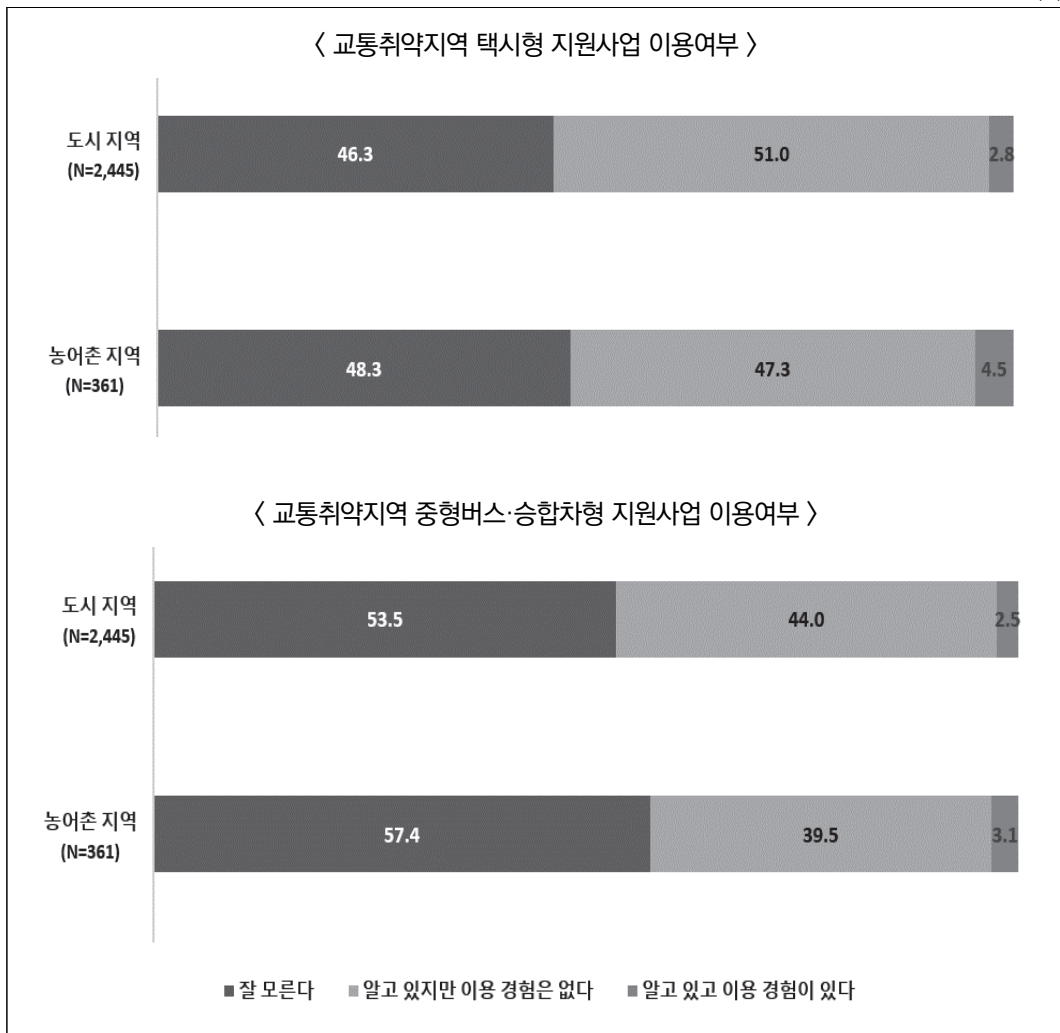
(%)

인지도와 이용경험	도시 지역 (N=361)	농어촌 지역 (N=2,445)
잘 모른다	53.5	57.4
알고 있지만 이용 경험은 없다	44.0	39.5
알고 있고 이용 경험이 있다	2.5	3.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4-1〉 농어촌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사업 인지도와 이용 여부

(%)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2. 보육·교육 기관의 통학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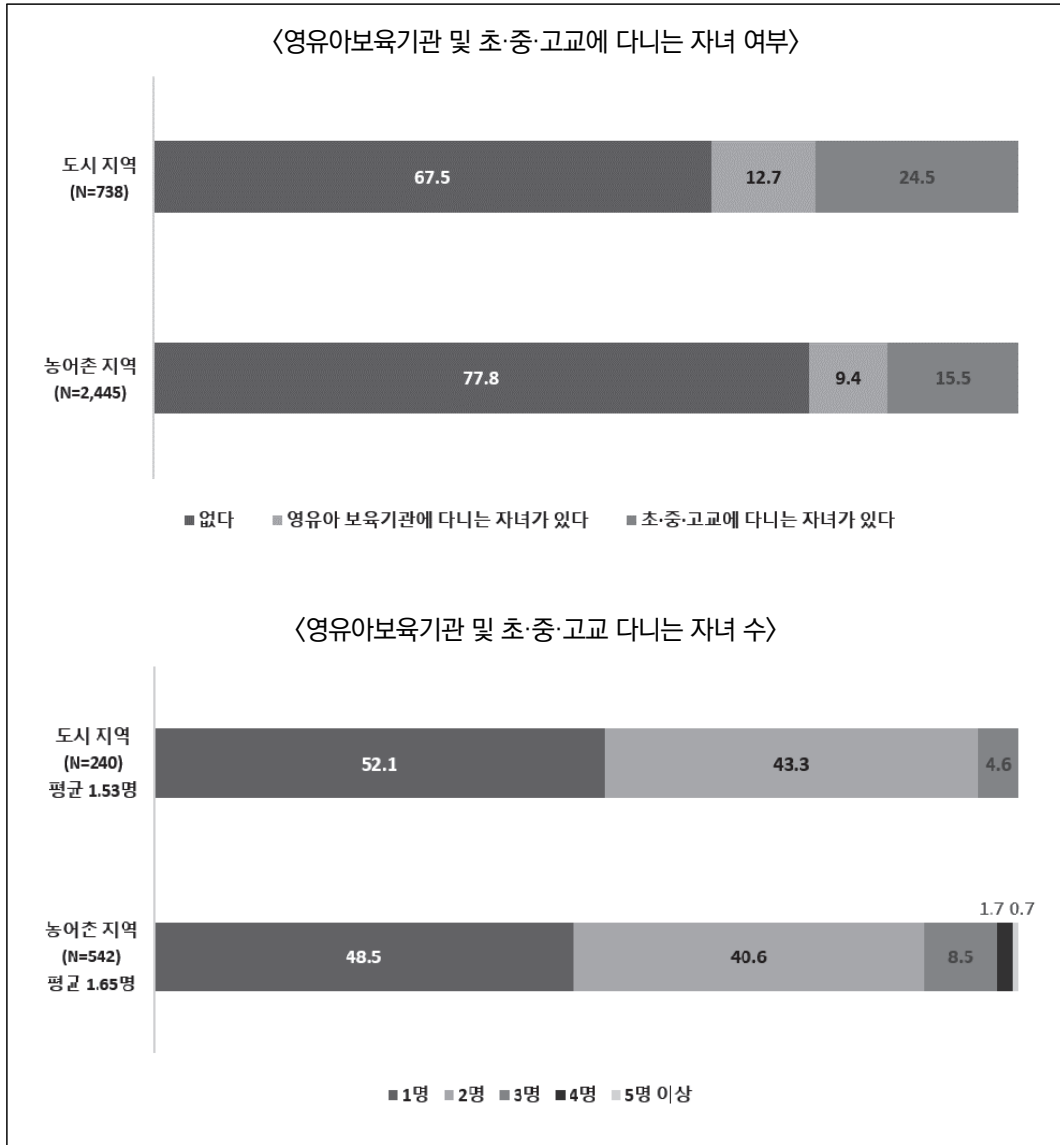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은 읍 소재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농업생산·산악·도서 지역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인구와 시설 밀도가 낮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보육·교육 시설과 주거 공간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통학 방법이 불편한 경우 등 통학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조사한 항목은 총 7문항으로 보육·교육 시설에 대한 통학 여건과 만족도에 대한 것이다.
 - 영유아보육기관 및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 수
 - 자녀의 소속 보육·교육 기관 종류
 - 자녀의 소속 보육·교육 기관 위치
 - 자녀의 주요 통학 수단과 통학 차량을 이용할 경우 승하차 지점까지 소요 시간
 - 자녀의 통학 시간(편도기준)
 - 자녀의 통학 관련 만족도
 - 학교 교육 여건의 문제점

- 영유아보육 기관 및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도시 지역이 37.2%, 농어촌 지역이 24.9%였다.
 - 영유아 보육기관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도시 지역이 12.7%, 농어촌 지역이 9.4%였다.
 -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도시 지역이 24.5%, 농어촌 지역이 15.5%였다.

〈그림 4-2〉 영유아보육기관 및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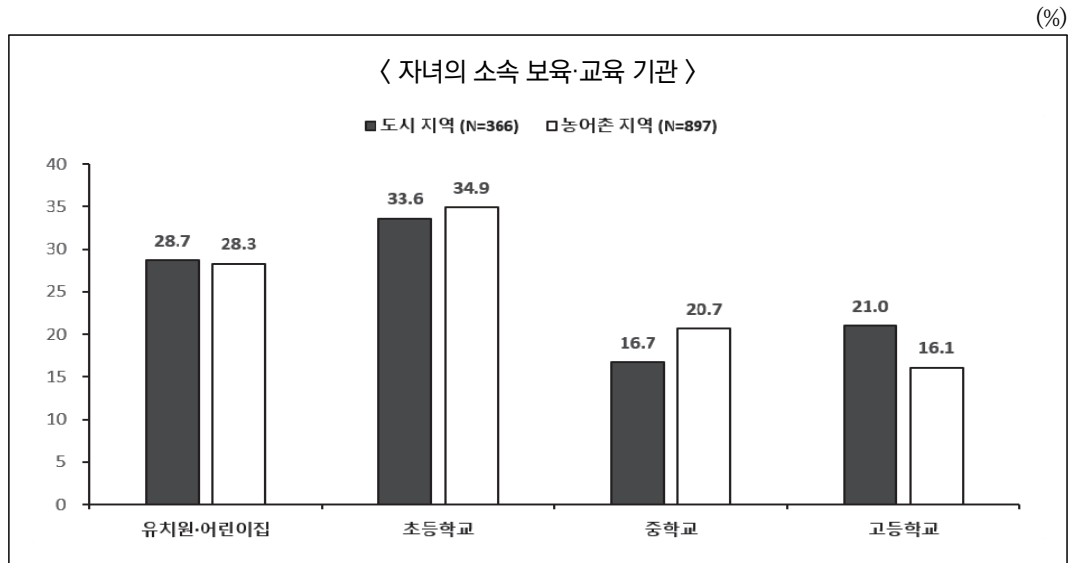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자녀가 소속된 보육·교육 기관은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유치원·어린이집, 중·고등학교 순이었다.

-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도시 지역이 33.6%, 농어촌 지역이 34.9%로 농어촌 지역이 조금 더 높았다.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응답자는 도시 지역이 28.7%, 농어촌 지역이 28.3%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상반된 비율을 보였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는 도시 지역이 16.7%, 농어촌 지역이 20.7%로 농어촌 지역 비율이 더 높았지만, 고등학교는 도시 지역이 21.0%, 농어촌 지역이 16.1%로 도시 지역이 더 높았다.
-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젊은 연령층이 많고 상급 학교가 많이 소재하고 있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자녀가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농어촌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은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3〉 자녀가 소속된 영유아보육기관 및 초·중·고교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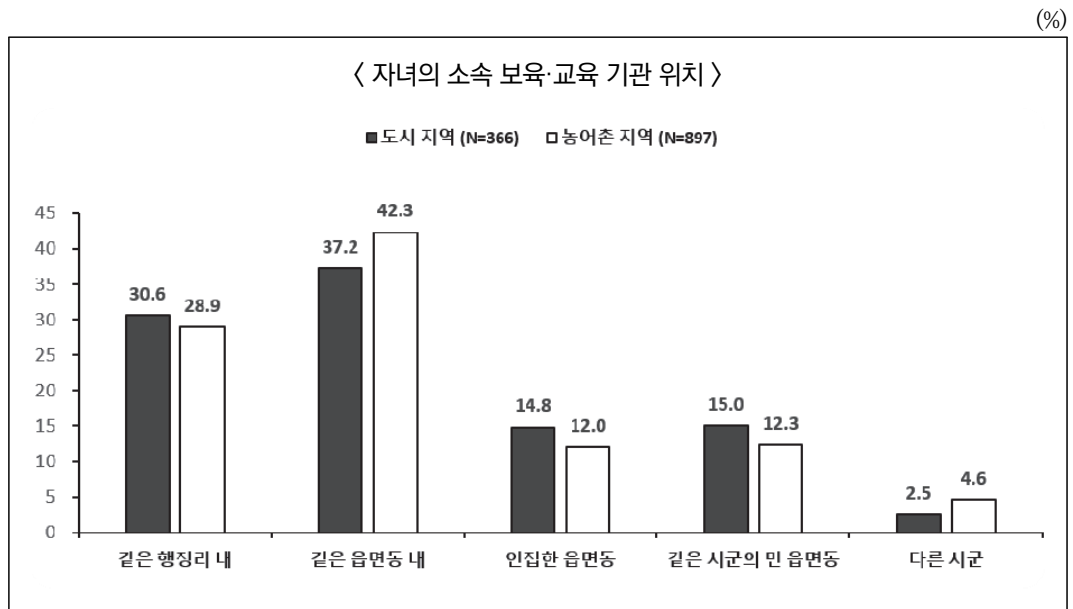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자녀가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의 위치는 거주 읍·면·동이 가장 많았고, 거주 행정리가 다음으로 많았으며, ‘인접한 읍면동’과 ‘같은 시군의 면 읍면동’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 같은 읍·면·동 내 보육·교육 기관으로 통학한다는 비율은 도시 지역이 37.2%, 농어촌 지역이 42.3%로 농어촌 지역이 좀 더 많았다.
 - 가장 가까운 지역인 같은 마을(행정리) 내에서 통학하는 비율은 도시 지역이 30.6%, 농어촌 지역 28.9%였다.

- 인접한 읍·면·동이나 같은 시군의 면 읍·면·동으로 통학하는 비율은 비슷했는데 도시 지역이 약 15%, 농어촌 지역이 약 12% 수준으로 도시 지역이 좀 더 높았다.
- 다른 시군으로 통학한다는 비율은 도시 지역이 2.5%, 농어촌 지역이 4.6%로 농어촌 지역이 높았는데, 응답자가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 내 낮은 보육·교육 여건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4〉 자녀가 소속된 보육·교육 기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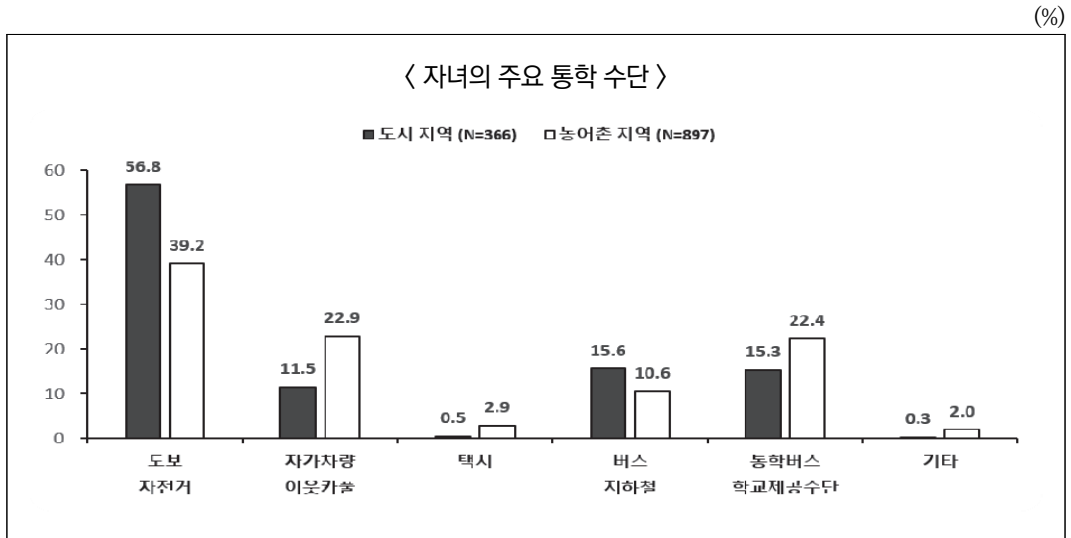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주요 통학 수단으로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비율도 높았다.
 - 도보·자전거 통학 비율은 도시 지역 56.8%, 농어촌 지역 39.2%로, 도시 지역에서 도보 및 자전거로 통학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가 차량 또는 이웃과 함께 통학하는 경우가 22.9%로 도시지역 11.5%의 약 두 배 비율로 조사되었다.
 - 통학버스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통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22.4%, 도시 지역이 15.3%로 농어촌 지역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 버스나 지하철로 통학하는 비율은 도시 지역에 15.6%로 농어촌 지역 10.6%보다 높았지만, 택시로 통학하는 비율은 농어촌이 2.9%로 도시 지역의 0.5%에 비해 높았다.

〈그림 4-5〉 자녀의 주요 통학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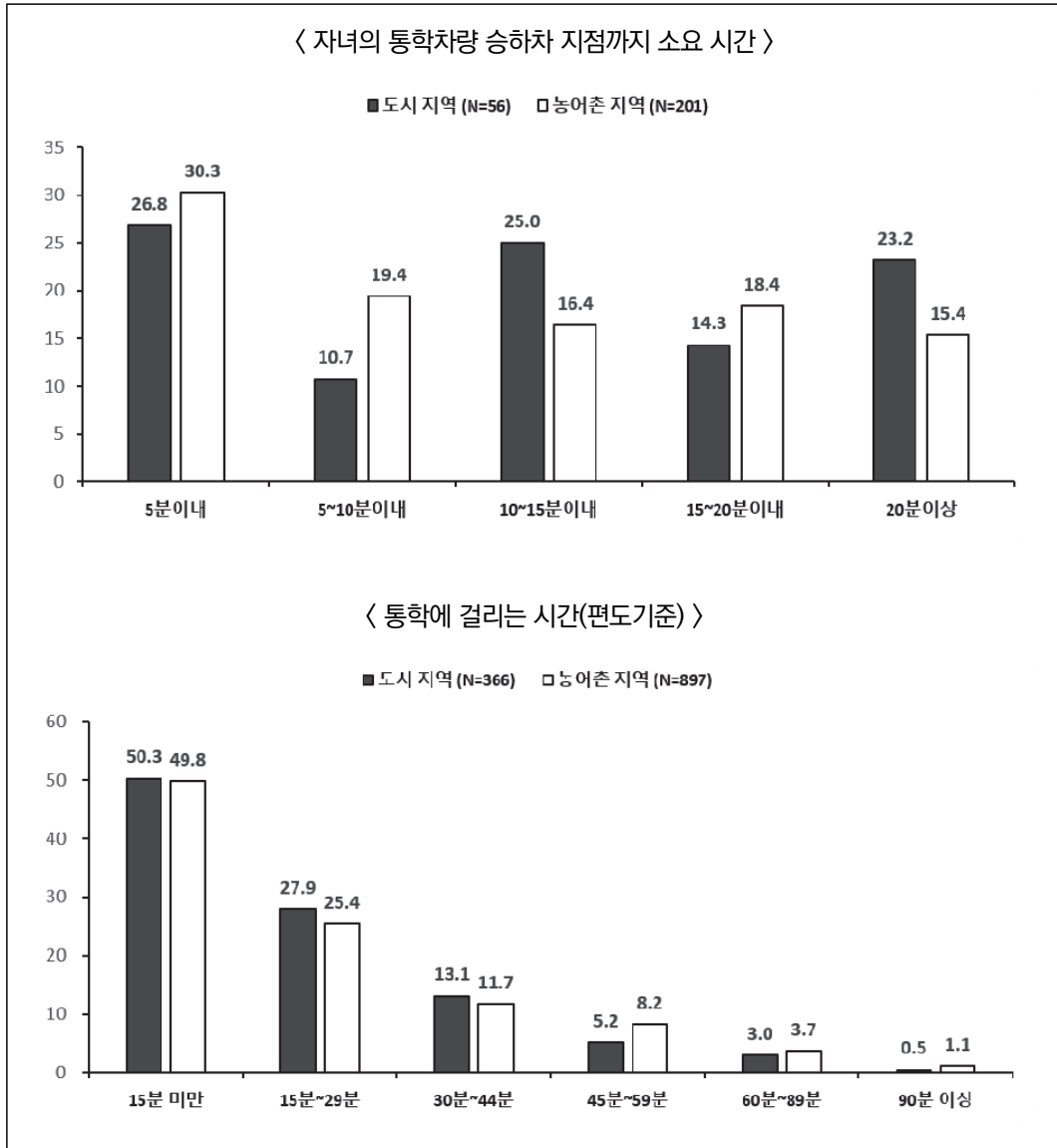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통학에 필요한 시간은 총 시간(편도)과 통학버스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통학수단을 이용할 경우 승하차 지점까지 자택에서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통학에 걸리는 총 시간은 15분 미만이 도시 50.3%, 농어촌 49.8%로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았다.
- 15분 이상 30분 미만의 통학 시간 비율은 도시 지역 27.9%, 농어촌 지역 25.4%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 45분 이상 1시간 미만의 통학 시간으로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8.2%, 도시 지역이 5.2%로 농어촌 지역이 높았는데, 통학에 1시간 이상이 필요한 모든 응답에서 농어촌 지역의 응답이 높았다
- 통학을 3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비율은 도시 지역 78.2%, 농어촌 지역 75.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5분 이상 필요한 경우는 농어촌 13.0%, 도시 지역 8.7%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림 4-6〉 자녀의 통학 시간

(%)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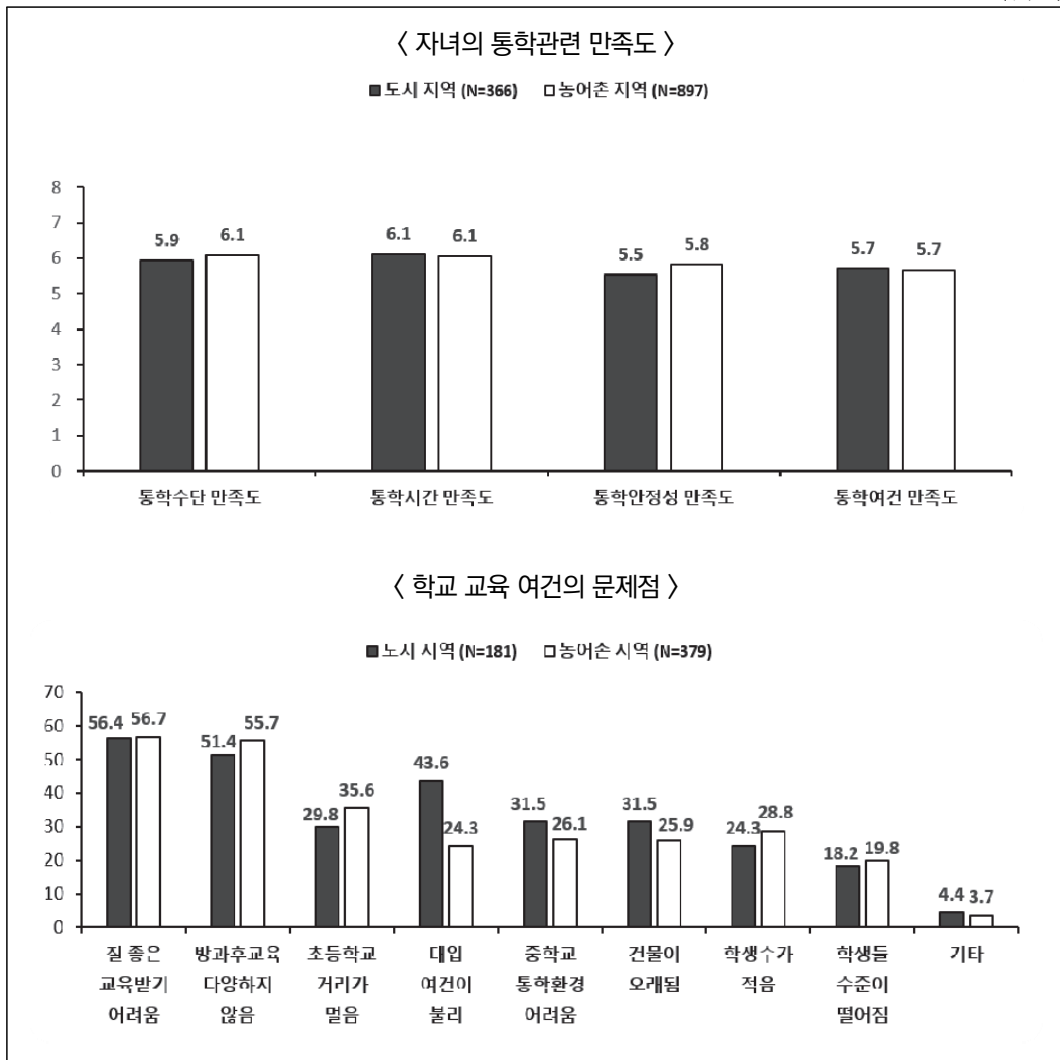
○ 자녀의 통학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서 통학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이 높았으며, 통학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지역이 같았다.

- 통학 수단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이 6.1%, 도시 지역이 5.9%로 농어촌 지역이 높았으며, 통학시간 만족도는 농어촌과 도시 지역이 6.1%로 같았다.

- 통학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농어촌이 5.8%로 도시지역 5.5%에 비해 높았으며, 통학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지역 모두 5.7%로 같았다.
- 학교교육 여건의 문제점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렵고 방과후 교육이 다양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 4-7〉 자녀의 통학 여건에 대한 만족도 및 학교 교육 여건의 문제점

(점, %)



주: 〈학교 교육 여건의 문제점〉은 1~3순위 응답 수 합계 /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3.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및 통합교육 방안

○ 농어촌 지역의 젊은 인구 감소로 인해 초등 학령기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사례가 많다.

- 학교당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사 수와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도시와 같은 정규 교과 수업 운영이 어려워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까운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학생들을 공유하거나 고학년과 저학년 등의 구분을 두어 특정 학교에 특정 학년을 모아서 교육하는 방법이 교육에 필요한 적정 수의 학생을 확보할 수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학교의 유희시설을 학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을 위한 복지 인프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2개의 조사 문항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학교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형 초·중 통합교육 전환(24.1%), 도시 지역에서 현재 학교 유지 및 리모델링(22.1%) 응답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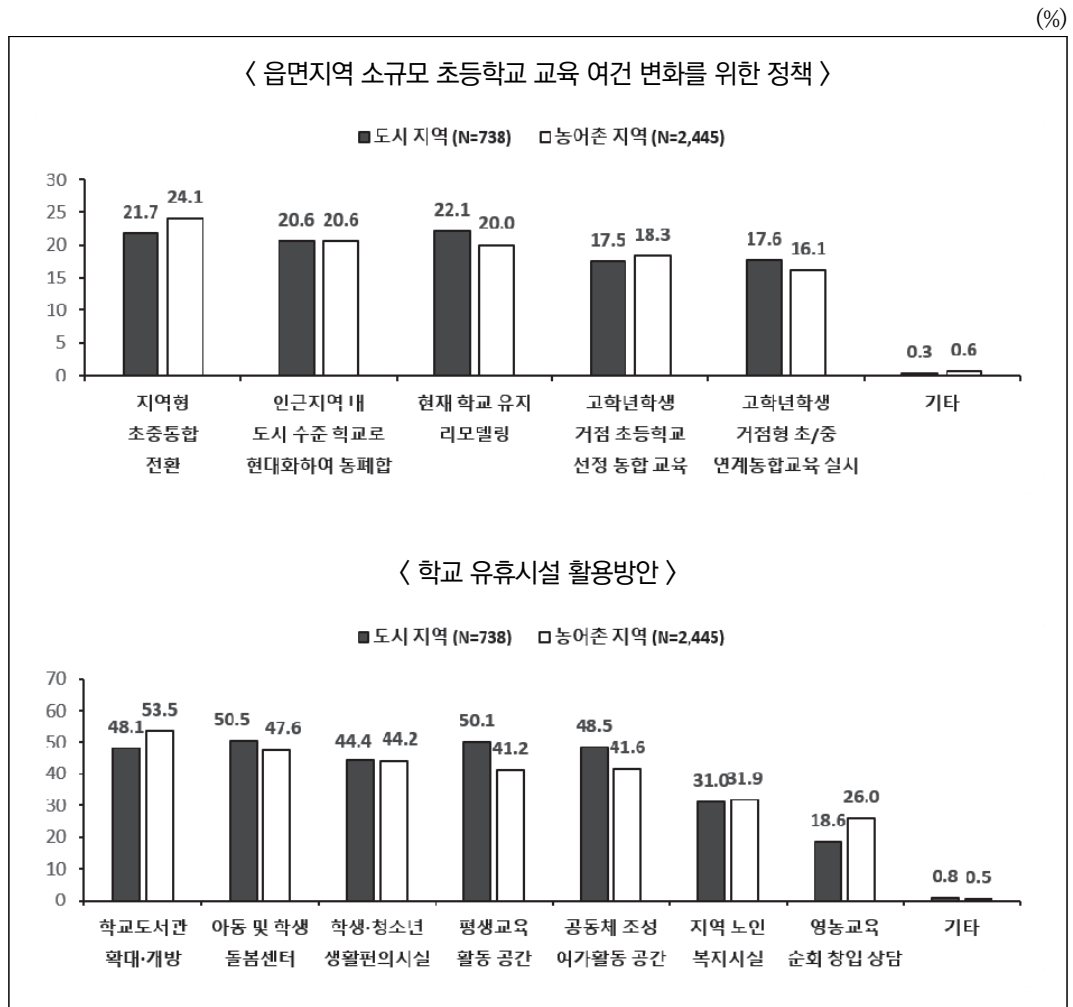
- 도시와 농어촌 응답률이 각 선택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지역형 초·중 통합교육 전환(2.4%p)이었다.
- 인근 지역의 학교를 도시 수준으로 현대화하여 통폐합하는 것을 선택한 비율은 농어촌과 도시 모두 20.6%로 같았다.

○ 학교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유희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학교도서관 확대·개방이었다.

- 학교도서관 확대·개방(53.5%)에 이어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아동 및 학생 돌봄센터(47.6%), 학생·청소년 생활편의시설(44.2%), 공동체 조성 여가활동 공간(41.6%), 평생교육 활동공간(41.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아동 및 학생 돌봄센터(50.5%)이었고 평생교육 활동 공간(50.1%), 공동체 조성 여가활동 공간(48.5%), 학교 도서관 확대·개방(4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 여건 변화를 위한 정책 및 학교 유휴시설 활용방안



주: 〈학교 유휴시설 활용방안〉은 1~3순위 응답 비율 합계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5

응답자 특성별 정주 만족도 분석

1. 분석 개요

- 본 조사에 응답한 농어촌과 도시 주민들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 차이를 살펴보았다.
 - 전국 응답자 3,183명의 지역 유형별, 연령별, 직업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 응답 항목으로 전반적 만족도, 공동체 및 지역사회, 그리고 삶의 질 정책 4대 부문별 만족도를 비교하고, 각 여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주민의 인구 특성으로 지역 유형, 연령, 직업군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 지역 유형은 전국, 도시·농촌, 농촌 지역의 읍·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 연령은 19세 포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었다.
 - 직업은 사무/관리직, 전문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생산/기능/노무직, 주부, 학생, 퇴직, 무직/기타로 분류하였다. 직업 구분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고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2. 전반적 만족도

2.1. 행복감

○ 행복감은 도시 지역인 동 지역 주민 응답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0.4점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면 지역이 읍 지역에 비해 0.5점 더 높았다.

- 농어촌 지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면 지역의 행복감이 높았다.

〈표 5-1〉 ‘행복감’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 점)

지역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전국		12.8	20.7	66.5	6.5
도농*	도시 지역	16.9	23.7	59.3	6.2
	농어촌 지역	11.5	19.8	68.7	6.6
읍면*	읍 지역	13.9	22.8	63.3	6.4
	면 지역	9.2	17.0	73.8	6.9

사례수: 전국 (3,183) / 동 지역 (738) / 읍 지역 (1,196) / 면 지역 (1,249)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응답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40대 응답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 행복감 항목의 전국 평균 점수인 6.5점보다 높은 연령층은 60대 이상이었으며 50대 이상은 근소한 차이로 전국 평균이 미치지 못하였다.

- 40대 연령층이 6.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최고 점수인 60대 이상에 비해 0.7점 낮았다.

〈표 5-2〉 ‘행복감’ 항목의 연령별 비교

(%, 점)

연령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연령별	19~29세	15.9	24.7	59.3	6.3
	30대	15.2	22.8	61.9	6.4
	40대	16.4	23.7	60.0	6.2
	50대	12.8	20.4	66.8	6.5
	60대 이상**	8.0	16.6	75.4	6.9

사례수: 19-29세 (364) / 30대 (473) / 40대 (642) / 50대 (710) / 60대 이상 (994)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군별 행복감 점수는 농림어업이 가장 높았으며, 무직/기타가 가장 낮았다.

- 전국 평균 점수보다 높은 직업군은 농림어업, 전문직, 주부, 학생 순이었다.

〈표 5-3〉 ‘행복감’ 항목의 직업별 비교

(%, 점)

직업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14.1	21.3	64.6	6.4
	전문직	9.5	18.4	72.1	7.0
	서비스/판매직	13.8	26.6	59.6	6.2
	농림어업*	4.2	9.7	86.1	7.3
	생산/기능/노무직	17.0	30.2	52.8	5.8
	주부	12.2	21.2	66.6	6.6
	학생	14.5	24.6	60.9	6.6
	퇴직	20.0	22.2	57.8	6.2
	무직 / 기타	24.6	30.4	44.9	5.6

사례수: 사무·관리직 (923) / 전문직 (283) / 서비스·판매직 (297) / 농림어업 (642) / 생산·기능·노무직 (235) / 주부 (368) / 학생 (69) / 퇴직 (90) / 무직·기타 (276)

주: ‘농림어업’은 모든 직업군과 유의미한 차이(p<0.01, ‘퇴직’ p<0.05, ‘전문직’과 ‘학생’ 제외)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2.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 응답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였다. 농어촌 중 면 지역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면 지역은 부정의 응답이 가장 낮았고 긍정의 응답이 가장 많아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 읍 지역은 부정의 응답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다.

〈표 5-4〉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 점)

지역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전국		15.0	14.4	70.6	6.6
도농*	도시 지역	15.2	14.5	70.3	6.4
	농어촌 지역	14.9	14.4	70.7	6.7
읍면*	읍 지역	16.8	15.6	67.6	6.5
	면 지역	13.1	13.3	73.6	6.9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 생활 만족도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하는 같은 점수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9-29세 연령층은 긍정과 부정 편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았는데, 응답자 개인 또는 세부 지역별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5〉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 , 점)

연령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연령별	19~29세	21.7	14.0	64.3	6.3
	30대	19.5	17.8	62.8	6.3
	40대	17.8	19.5	62.8	6.3
	50대	15.5	12.8	71.7	6.6
	60대 이상*	8.2	10.9	80.9	7.2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 만족도는 농림어업이 가장 높았으며, 무직/기타를 제외하고 생산/기능/노무직이 가장 낮았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인 전문직보다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만족도가 높았다.

〈표 5-6〉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항목의 직업별 비교

(% , 점)

직업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15.7	14.2	70.1	6.5
	전문직	13.1	15.2	71.7	6.8
	서비스/판매직	16.5	16.8	66.7	6.4
	농림어업*	5.3	7.9	86.8	7.5
	생산/기능/노무직	24.3	19.6	56.2	6.0
	주부	13.6	17.4	69.0	6.7
	학생	20.3	11.6	68.1	6.5
	퇴직	16.7	13.3	70.0	6.5
	무직 / 기타	27.5	19.6	52.9	5.7

주: '농림어업'은 모든 직업군과 유의미한 차이(p<0.01, '전문직' p<0.05, '학생'·'퇴직자' 제외)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3.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짐

○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응답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 중 면 지역이 가장 높았다.

- 도시 지역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 부정의 응답률이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 긍정의 응답률이 낮고 보통의 응답률이 높았다.
- 읍 지역과 면 지역의 부정 응답률은 같았지만 읍 지역이 보통 응답률이 높은 반면, 면 지역은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차이가 있었다.

〈표 5-7〉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짐’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점)

지역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전국		19.3	19.0	61.7	6.2
도농*	도시 지역	20.2	23.2	56.6	6.0
	농어촌 지역	19.1	17.7	63.2	6.3
읍면**	읍 지역	19.1	19.5	61.5	6.2
	면 지역	19.1	16.0	64.9	6.4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 만족도 차이는 근소하였다.

- 최고 만족도를 보인 60대 이상과 최저 만족도의 19~29세 연령층의 만족도 차이는 0.3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 19~29세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정의 응답률이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 보통과 긍정의 응답률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8〉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짐’ 항목의 연령별 비교

(%, 점)

연령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연령별	19~29세	20.6	23.9	55.5	6.0
	30대	18.6	19.7	61.7	6.3
	40대	19.3	19.2	61.5	6.2
	50대	20.0	18.7	61.3	6.2
	60대 이상	18.7	16.9	64.4	6.3

주: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 없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농림어업, 학생이 근소한 차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무직/기타를 제외하고 생산/기능/노무직과 퇴직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짐’ 항목의 직업별 비교

(%, 점)

직업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17.4	19.1	63.5	6.3
	전문직	11.7	16.3	72.1	6.8
	서비스/판매직	21.2	20.9	57.9	6.0
	농림어업	14.6	11.5	73.8	6.7
	생산/기능/노무직	27.2	23.0	49.8	5.6
	주부	20.4	21.7	57.9	6.1
	학생	13.0	21.7	65.2	6.6
	퇴직	30.0	23.3	46.7	5.7
	무직 / 기타	32.2	27.5	40.2	5.2

주: ‘농림어업’은 모든 직업군과 유의미한 차이(p<0.05, ‘사무관리직’·‘전문직’·‘학생’ 제외)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4. 마을 발전 전망

○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향후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은 도시 지역이 가장 높았고 농어촌 중 면 지역이 가장 낮았다.

- 지역별 평균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 보통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지역마다 비슷했지만, 부정의 응답률은 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약 9% 높았으며, 긍정의 응답률은 약 9% 낮았다.

〈표 5-10〉 ‘마을 발전 전망’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점)

지역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전국	15.6	18.6	65.8	6.5	
도농*	도시 지역	10.3	18.2	71.5	6.8
	농어촌 지역	17.3	18.7	64.0	6.5
읍면**	읍 지역	14.9	19.1	66.0	6.6
	면 지역	19.5	18.3	62.1	6.4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 만족도는 5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19~29세와 60대 이상에서 낮았다

- 만족도 평균 점수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부정과 긍정 응답률 차이는 50대에서 가장 컸다.

〈표 5-11〉 ‘마을 발전 전망’ 항목의 연령별 비교

(% , 점)

연령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연령별	19~29세	16.5	20.6	62.9	6.4
	30대	16.1	18.8	65.1	6.6
	40대	16.0	19.5	64.5	6.5
	50대	12.4	16.3	71.3	6.8
	60대 이상	17.2	18.8	64.0	6.4

주: 연령별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마을 발전을 전망하고 있었으며,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전망을 하고 있었다.

- 전국 평균보다 낮은 마을 발전 전망을 가진 직업군은 무직/기타, 생산/기능/노무직, 퇴직, 서비스/판매직 순이었다.

〈표 5-12〉 ‘마을 발전 전망’ 항목의 직업별 비교

(% , 점)

직업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12.6	17.3	70.1	6.7
	전문직	11.7	16.3	72.1	6.9
	서비스/판매직	16.8	21.2	62.0	6.4
	농림어업	17.4	16.5	66.0	6.6
	생산/기능/노무직	19.6	22.6	57.9	6.1
	주부	17.9	16.8	65.2	6.5
	학생	10.1	15.9	73.9	6.8
	퇴직	18.9	22.2	58.9	6.2
	무직 / 기타	18.5	25.7	55.8	6.1

주: 직업별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5. 시·군 발전 전망

- 거주하는 시·군의 발전을 전망하는 항목에 대한 지역별 응답에서 도시 지역이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였고 농어촌 중 면 지역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다.
 - 도시 지역의 부정적 응답률은 10%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았다.
 - 지역별 평균 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3〉 ‘시·군 발전 전망’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 점)

지역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전국		14.1	17.3	68.6	6.7
도농**	도시 지역	8.4	18.4	73.2	6.9
	농어촌 지역	15.8	17.0	67.2	6.6
읍면	읍 지역	14.4	16.6	69.1	6.7
	면 지역	17.1	17.5	65.4	6.6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 시·군 발전 전망은 50대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19~29세가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 시·군 발전 전망의 연령별 평균은 마을 발전 전망과 유사하였으며 60대 이상이 조금 더 높았다.
 - 연령별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5-14〉 ‘시·군 발전 전망’ 항목의 연령별 비교

(% , 점)

연령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연령별	19~29세	14.6	19.2	66.2	6.5
	30대	14.0	19.9	66.2	6.7
	40대	15.3	16.5	68.2	6.6
	50대	10.8	17.0	72.1	6.9
	60대 이상	15.5	16.2	68.3	6.7

주: 연령별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로는 학생, 농림어업, 사무/관리직 응답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고, 생산/기능/노무직, 무직/기타가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농림어업 종사자 응답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앞서 살펴본 항목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5〉 ‘시·군 발전 전망’ 항목의 직업별 비교

(%, 점)

직업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11.5	16.4	72.2	6.8
	전문직	13.1	18.0	68.9	6.8
	서비스/판매직	14.1	19.9	66.0	6.7
	농림어업	13.7	15.4	70.9	6.9
	생산/기능/노무직	19.1	17.9	63.0	6.2
	주부	16.8	15.8	67.4	6.7
	학생	8.7	20.3	71.0	7.0
	퇴직	15.6	17.8	66.7	6.5
	무직 / 기타	17.4	22.5	60.1	6.2

주: 직업별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 공동체 및 지역사회

3.1. 대인관계

○ 이웃·지역주민과 관계가 원만한지를 묻는 질문에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농어촌 중 면 지역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 면 지역 평균은 동 지역보다 1점 이상 높아서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에 큰 차이가 있었다.

- 읍 지역 평균은 동 지역보다는 높았지만 면 지역에 비해 약 1점 낮았는데 농어촌 지역 내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6〉 ‘대인관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점)

지역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전국		16.9	21.1	62.0	6.3
도농*	도시 지역	20.1	26.4	53.5	5.8
	농어촌 지역	15.9	19.6	64.5	6.4
읍면*	읍 지역	19.4	23.6	57.0	6.0
	면 지역	12.6	15.7	71.7	6.9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 평균은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19-29세가 가장 낮았는데, 평균 차이가 매우 컸다.

- 60대 이상 다음으로 높은 평균을 보인 50대는 60대 이상보다 약 1점 낮아 격차가 컸다.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인관계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30대와 40대의 평균이 유사하였다.

〈표 5-17〉 ‘대인관계’ 항목의 연령별 비교

(%, 점)

연령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연령별	19~29세	28.3	29.1	42.6	5.3
	30대	19.7	28.5	51.8	5.9
	40대	22.1	25.4	52.5	5.8
	50대	17.5	19.0	63.5	6.2
	60대 이상*	7.5	13.5	79.0	7.3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은 차이를 보이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무직/기타와 생산/기능/노무직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 직업별 평균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이는 2.5점 이상이었다.
- 전국 평균 이상의 직업군은 농림어업, 주부였다.

〈표 5-18〉 ‘대인관계’ 항목의 직업별 비교

(%, 점)

직업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18.2	24.7	57.1	6.0
	전문직	17.0	25.8	57.2	6.1
	서비스/판매직	23.2	24.2	52.5	5.9
	농림어업*	3.4	6.2	90.3	7.9
	생산/기능/노무직	27.7	23.8	48.5	5.5
	주부	14.7	19.6	65.8	6.5
	학생	26.1	24.6	49.3	5.5
	퇴직	18.9	25.6	55.6	5.8
	무직 / 기타	27.5	33.3	39.1	5.3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2.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냐는 질문에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평균 차이가 컸다.

-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면 지역에 비해 동 지역은 평균이 1.2점 낮았다.
- 읍 지역은 면 지역에 비해 평균이 1.0점 낮아 농어촌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존재’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점)

지역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전국		24.7	16.3	59.0	5.9
도농*	도시 지역	31.8	17.5	50.7	5.4
	농어촌 지역	22.6	15.9	61.5	6.1
읍면*	읍 지역	28.0	19.1	52.8	5.6
	면 지역	17.4	12.8	69.8	6.6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로는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60대 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19~29세 평균이 가장 낮았다.

-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 60대 이상의 평균보다 19~29세 평균이 1.7점 낮아 큰 격차를 보였다.
- 60대 이상 다음으로 평균이 높은 50대는 60대 이상과 1.0점 차이가 나, 다른 연령층 간 차이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표 5-2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존재’ 항목의 연령별 비교

(% , 점)

연령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연령별	19~29세	33.5	23.9	42.6	5.2
	30대	32.1	17.8	50.1	5.4
	40대	29.9	20.4	49.7	5.5
	50대	25.5	15.4	59.2	5.9
	60대 이상*	14.1	10.8	75.2	6.9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 평균에서 농림어업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과 큰 격차를 보였다.
- 농림어업 종사자의 평균은 7.6점이었지만 다른 직업군은 모두 5점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협업이 필요한 농림어업의 특성으로 다른 직업군 종사자에 비해 지역 주민과 더 양질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5-2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존재’ 항목의 직업별 비교

(% , 점)

직업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30.0	16.8	53.2	5.5
	전문직	26.5	17.7	55.8	5.8
	서비스/판매직	26.6	20.2	53.2	5.6
	농림어업*	6.5	6.4	87.1	7.6
	생산/기능/노무직	34.5	17.4	48.1	5.2
	주부	24.2	17.7	58.2	5.8
	학생	27.5	26.1	46.4	5.6
	퇴직	27.8	24.4	47.8	5.3
	무직 / 기타	36.2	23.9	39.9	5.1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3. 정책 신뢰도

○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면 지역은 가장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동 지역과 읍 지역은 같은 수준의 신뢰를 보였다.

- 면 지역은 농림어업 생산이 시행되는 주요 공간이자 전형적인 저밀도 농어촌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농림어업과 농어촌 관련 정책에 노출도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5-22〉 ‘정책 신뢰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 점)

지역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전국		22.4	23.0	54.6	5.9
도농*	도시 지역	25.5	25.7	48.8	5.6
	농어촌 지역	21.5	22.1	56.4	6.0
읍면*	읍 지역	25.0	25.3	49.7	5.6
	면 지역	18.1	19.1	62.8	6.4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정책 신뢰도를 보였으며 19~29세 연령층이 가장 낮은 신뢰를 보였다.

- 60대 이상과 19~29세 연령층의 신뢰도 평균 점수 차이는 1.5점으로 상당히 커서, 연령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분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와 40대의 신뢰도가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졌으나 60대 이상에서 급격한 신뢰도 상승이 있었다.

〈표 5-23〉 ‘정책 신뢰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 , 점)

연령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연령별	19~29세	30.8	28.6	40.7	5.2
	30대	26.4	27.7	45.9	5.5
	40대	28.0	26.2	45.8	5.4
	50대	22.0	21.8	56.2	5.9
	60대 이상*	14.1	17.4	68.5	6.7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로 보았을 때 농림어업이 가장 높았으며 생산/기능/노무직과 무직/기타가 가장 낮았다.

- 다른 직업군 평균이 5점대인 것을 고려할 때 농림어업의 7.4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로 볼 수 있다.
- 농림어업은 타 직업군에 비해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5-24〉 ‘정책 신뢰도’ 항목의 직업별 비교

(% , 점)

직업 구분		부정 [0~4점]	보통 [5점]	긍정 [6~10점]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23.5	23.8	52.7	5.7
	전문직	27.9	26.1	45.9	5.5
	서비스/판매직	26.9	25.3	47.8	5.6
	농림어업*	6.5	12.1	81.3	7.4
	생산/기능/노무직	35.3	24.3	40.4	5.1
	주부	24.2	23.4	52.4	5.7
	학생	26.1	31.9	42.0	5.5
	퇴직	20.0	41.1	38.9	5.3
	무직/기타	31.5	29.7	38.8	5.1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4. 지역사회 활동 정도

○ 지역사회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묻는 질문에 면 지역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 지역과 읍 지역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면 지역은 동·읍 지역의 평균보다 0.4점 높았는데, 4점 척도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점수 차이로 볼 수 있다.
- 면 지역은 농림어업 생산의 주요 공간으로 주민들 사이에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5-25〉 ‘지역사회 활동 정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점)

지역 구분		전혀 참여 안 한다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 (4점 만점)
전국		29.7	41.2	23.9	5.2	2.1
도농*	도시 지역	35.2	41.3	20.5	3.0	1.9
	농어촌 지역	28.0	41.1	25.0	5.9	2.1
읍면*	읍 지역	34.4	41.9	21.5	2.2	1.9
	면 지역	21.8	40.4	28.3	9.4	2.3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대와 40대는 1.9점).

-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10.2%로 다른 연령층에서 2~3% 대인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5-26〉 ‘지역사회 활동 정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 점)

연령 구분		전혀 참여 안 한다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 (4점 만점)
연령별	19~29세**	46.7	39.8	10.4	3.0	1.7
	30대	36.4	42.1	18.0	3.6	1.9
	40대	34.3	43.0	20.4	2.3	1.9
	50대	28.7	43.4	24.8	3.1	2.0
	60대 이상*	17.9	38.5	33.4	10.2	2.4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무직/기타를 제외할 경우 다른 직업군은 비슷한 참여률을 보였다.

-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와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비율을 합쳤을 때 50% 이상 응답률을 보인 직업군은 농림어업이 유일했다.

〈표 5-27〉 ‘지역사회 활동 정도’ 항목의 직업별 비교

(%, 점)

직업 구분		전혀 참여 안 한다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 (4점 만점)
직업군	사무/관리직	32.8	45.6	19.4	2.2	1.9
	전문직	27.9	44.9	24.0	3.2	2.0
	서비스/판매직	30.3	39.7	26.9	3.0	2.0
	농림어업*	10.9	36.8	38.2	14.2	2.6
	생산/기능/노무직	34.5	43.4	19.6	2.6	1.9
	주부	32.9	41.0	23.1	3.0	2.0
	학생	36.2	40.6	14.5	8.7	2.0
	퇴직	26.7	46.7	22.2	4.4	2.0
	무직 / 기타	54.7	31.2	10.5	3.6	1.6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5.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 환경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 또는 ‘기꺼이’ 참여한다는 응답률은 면 지역이 가장 높았다.

-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석한다’는 응답률까지 포함하면 동 지역이 가장 높았다.

〈표 5-28〉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 점)

지역 구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에 관해 생각해본 적 없다	참여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석한다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꺼이 참석한다
전국		13.0	29.9	29.2	23.0	5.0
도농	도시 지역	12.1	24.7	33.3	24.7	5.3
	농어촌 지역	13.3	31.5	27.9	22.5	4.9
읍면	읍 지역	14.0	30.0	33.9	20.0	2.1
	면 지역	12.6	32.8	22.1	24.8	7.7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활동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 ‘권유’ 응답 이상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19~29세(48.7%)부터 50대(61.7%)까지는

참여 의향이 높아졌으나 60대 이상(61.2%)에서는 다소 참여 의향이 낮아졌다.

- '적극적' 응답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도 30대(19.3%)부터 60대 이상(36.3%)까지 참여 의향이 높아졌다. 다만, 20대 응답률(20.1%)이 30대 응답률보다 약간 높았다.

〈표 5-29〉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항목의 연령별 비교

(%)

연령 구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에 관해 생각해본 적 없다	참여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석한다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꺼이 참석한다
연령별	19~29세	20.1	31.3	28.6	16.5	3.6
	30대	18.6	31.3	30.9	15.9	3.4
	40대	12.3	31.9	32.2	19.0	4.5
	50대	10.7	27.6	31.4	25.5	4.8
	60대 이상	9.8	29.0	24.9	29.5	6.8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로 보았을 때, 퇴직자가 가장 높은 참여 의지를 보였다.

- '참여 의지를 '적극적' 응답 이상으로 두었을 때 농림어업은 퇴직과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며 높은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 농림어업 종사자의 높은 참여 의지는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30〉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항목의 직업별 비교

(%)

직업 구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에 관해 생각해본 적 없다	참여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석한다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꺼이 참석한다
직업군	사무/관리직	12.6	28.2	33.9	21.3	4.0
	전문직	11.3	22.6	31.8	27.6	6.7
	서비스/판매직	9.1	30.6	35.0	21.5	3.7
	농림어업	9.7	33.3	19.8	28.8	8.4
	생산/기능/노무직	16.2	29.4	29.8	21.7	3.0
	주부	15.5	34.8	28.8	17.4	3.5
	학생	14.5	34.8	23.2	21.7	5.8
	퇴직	7.8	18.9	35.6	32.2	5.6
	무직 / 기타	23.2	30.4	25.4	17.4	3.6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응답 비교

4.1. 보건·복지 부문

- 지역별 만족도는 동 지역이 가장 높았고 읍과 면 지역은 같았다.
 - 도시 지역은 농어촌 지역보다 평균 1.2점 높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 분만 의료 서비스는 부문 내 항목 중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도 컸지만 읍 지역과 면 지역의 차이도 가장 컸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좀더 면밀한 농어촌 지역 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 연령별 평균에서 40대 이하는 같은 점수를 보였다.
 -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항목은 최고 만족도를 보인 60대 이상 연령층과 40대 이하 연령층이 1점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항목은 최고 만족도를 보인 60대 이상 연령층과 40대 이하 연령층이 1점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분만 의료 서비스’는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 직업별 만족도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와 학생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전문직과 사무/관리직 종사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 보호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여성/다문화 주민 복지 지원’ 항목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농림어업 종사자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 시설의 밀도가 가장 낮은 면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어작업 안전’에 대한 항목에서 평균을 넘어선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5-31〉 보건·복지 부문 지역 유형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지역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이동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여성/다문화 주민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종사자)	평균
전국	6.6	6.0	6.0	5.6	6.2	6.2	6.1	6.2	6.0	7.0	6.1
도농*	도시 지역	7.2	7.2	7.0	7.3	6.8	6.7	6.6	6.5	5.5	7.0
	농어촌 지역	6.3	5.6	5.2	5.9	6.0	5.9	6.1	5.9	7.0	5.8
읍면	읍 지역	6.7	5.8	5.2	5.8	5.9	5.8	5.9	5.7	6.4	5.8
	면 지역	5.9	5.4	5.5	5.2	6.0	6.0	6.2	6.1	7.1	5.8

주: 평균 점수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도농 비교 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 '농어작업 안전' 제외) / 읍면 비교 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 '분만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이동양육보호지원' 항목 제외)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표 5-32〉 보건·복지 부문 연령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연령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이동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여성/다문화 주민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종사자)	평균
연령	19~29세	6.7	5.9	5.9	5.4	5.7	5.7	5.5	5.5	6.3	5.8
	30대	6.4	5.8	5.9	5.4	5.6	5.7	5.8	5.6	5.1	5.8
	40대	6.5	5.8	5.9	5.4	5.7	5.8	5.9	5.8	6.1	5.8
연령	50대	7.0	6.2	6.3	5.8	6.4	6.2	6.4	6.2	6.9	6.3
	60대 이상	6.4	6.0	6.0	5.7	6.8	6.4	6.8	6.5	7.1	6.4

주: 평균 점수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계층 복지지원' 항목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 / '여성/다문화 주민 복지 지원' 항목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유의미한

차이($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표 5-33〉 보건·복지 부문 직업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직업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여성/다문화 주민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종사자)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6.9	6.3	6.4	5.9	6.2	6.1	6.1	6.0	.	6.2
	전문직	7.2	6.2	6.2	5.7	6.2	6.2	6.3	6.2	.	6.3
	서비스/판매직	6.6	6.0	5.9	5.5	6.1	6.1	6.0	6.0	.	6.0
	농림어업	6.1	5.8	5.8	5.8	6.9	6.8	6.5	7.0	7.0	6.4
	생산/기능/노무직	6.4	5.6	5.7	5.1	5.6	5.7	5.6	5.6	.	5.7
	주부	6.6	5.8	5.8	5.2	6.0	6.0	6.1	6.0	.	5.9
	학생	7.1	6.5	6.5	5.8	6.4	6.6	6.4	6.3	.	6.4
	퇴직	6.9	6.2	6.2	5.5	6.2	6.0	6.0	6.0	.	6.1
	무직/기타	6.3	5.7	5.6	5.1	5.5	5.5	5.4	5.5	.	5.5

주. 평균 점수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직업별 평균은 없었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2. 교육·문화 부문

- 지역별 만족도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1점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읍 지역이 면 지역보다 0.2점 높았다.
 - ‘문화 공동체 활동’은 도농 격차가 0.7점으로 다른 항목이 1점 내외인 점과 비교하여 차이가 적었다.
 - 지역 평균과 비교할 때 읍과 면 지역은 ‘공교육 수준’, ‘방과후 교육 기회’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으로 동과 읍 지역은 ‘문화 공동체 활동’, 면 지역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있었다.

- 연령별 만족도는 큰 편차 없이 평균 5.5~5.8점으로 조사되었다.
 -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50대는 ‘공교육 수준’과 ‘방과후 교육 기회’ 항목에서 6점대의 만족도를 보였다.
 - 이외에 6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60대 이상에서 ‘공교육 수준’, 10~29세에서 ‘방과후 교육 기회’이었다.

- 직업별로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이 가장 높았고, 생산/기능/노무직과 무직/기타 직업군이 가장 낮았다.
 - 학생만 6점대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세부 항목별로 보아도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였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세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평이한 만족도로 조사되었다.

〈표 5-34〉 교육·문화 부문 지역 유형별 응답 비교

지역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평균
전국	6.0	5.9	5.6	5.6	5.6	5.4	5.4	5.6
도농*	도시 지역	6.7	6.6	6.3	6.5	6.2	5.9	6.4
	농어촌 지역	5.8	5.6	5.4	5.4	5.1	5.2	5.4
읍면	읍 지역	5.9*	5.8	5.4	5.5*	5.3*	5.2	5.5
	면 지역	5.7*	5.5	5.3	5.2*	5.0*	5.2	5.3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표 5-35〉 교육·문화 부문 연령별 응답 비교

연령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평균
19~29세	5.9	6.0	5.5	5.6	5.6	5.4	5.2	5.6
30대	5.8	5.7	5.5	5.6	5.6	5.3	5.3	5.5
40대	5.9	5.8	5.5	5.5	5.6	5.4	5.3	5.6
50대	6.2	6.1	5.7	5.7	5.8	5.5	5.4	5.8
60대 이상	6.1	5.8	5.6	5.6	5.6	5.3	5.5	5.7

주: 연령별 평균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표 5-36〉 교육·문화 부문 직업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직업 구분	공교육 수준	비과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6.2	6.0	5.7	5.8	6.0	5.7	5.5
	전문직	6.1	6.0	5.8	5.7	5.7	5.4	5.3
	서비스/판매직	6.0	5.9	5.5	5.4	5.3	5.2	5.2
	농림어업	6.1	5.7	5.7	5.7	5.5	5.3	5.7
	생산/기능/노무직	5.6	5.6	5.2	5.1	5.3	5.1	4.9
	주부	6.1	5.9	5.4	5.5	5.3	5.2	5.1
	학생	6.6	6.7	6.1	6.1	6.4	6.2	5.8
	퇴직	6.1	6.0	5.5	5.5	5.8	5.6	5.3
	무직/기타	5.6	5.5	5.1	5.2	5.3	5.0	4.9

주: 직업별 평균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3. 정주·생활기반 부문

- 지역별 만족도를 보았을 때, 도시 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평균 0.7점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면 지역은 읍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생활서비스’, ‘주택 상태’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교통안전’, ‘자연재해 안전’, ‘응급차량 접근 용이’, ‘범죄안전’, ‘적은 환경 오염’, ‘정돈된 환경/경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항목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면 지역은 ‘대중교통’ 항목에서 5.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조사되었는데 도시 지역과 1.7점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 서비스’ 항목 또한 1.7점 차이였다.
 - 농어촌 지역, 특히 면 지역 주민에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50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볼 때 연령별 만족도 편차가 컸는데, ‘적은 환경오염’ 항목에서는 60대 이상 7.0점과 19~29세 5.9점으로 1점 이상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여 정주생활기반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대중교통’ 항목의 40대 이하 연령층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에 따른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직업별 만족도에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가장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 생산/기능/노무직과 무직/기타를 제외한다면 직업군별 평균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부문 내 최저 점수로 조사된 생산/기능/노무직의 ‘대중교통’ 항목을 살펴볼 때, 이 직업군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할 비율이 높으며 실제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

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 농림어업 종사자가 항목별 평균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항목(0.8점)과 ‘적은 환경오염’ 항목(0.7점)이었는데 농림어업 활동 특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37〉 정주생활기반 부문 지역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지역 구분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주택 상태	교통안전	자연재해 안전	응급차량 접근 용이	범죄 안전	적은 환경오염	정돈된 환경/경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평균
전국	6.0	6.9	6.7	6.5	6.5	6.4	6.8	6.7	6.8	6.5	6.6	6.2	6.6
도농*	7.3	7.7	7.7	7.6	7.0	6.8	7.3	7.1	6.9**	6.8	6.9	6.4	7.1
읍면	5.7	6.7	6.4	6.2	6.4	6.3	6.7	6.6	6.7**	6.4	6.6	6.1	6.4
	5.7	6.9*	6.7*	6.5*	6.5**	6.2**	6.6	6.6	6.6*	6.3*	6.4*	5.9*	6.4
	5.6	6.4*	6.1*	5.9*	6.3**	6.4**	6.7	6.7	6.8*	6.6*	6.7*	6.3*	6.4

주: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표 5-38〉 정주생활기반 부문 연령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연령 구분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주택 상태	교통안전	자연재해 안전	응급차량 접근 용이	범죄 안전	적은 환경오염	정돈된 환경/경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평균
19~29세	5.7	6.8	6.6	6.6	6.4	6.1	6.4	6.2	6.3	5.9	6.2	5.8	6.3
30대	5.7	6.7	6.5	6.4	6.1	6.0	6.4	6.3	6.2	6.0	6.2	5.8	6.2
40대	5.7	6.9	6.6	6.4	6.5	6.1	6.5	6.4	6.5	6.1	6.3	5.8	6.3
50대	6.3	7.3	7.0	6.8	6.9	6.6	7.1	7.1	7.0	6.8	6.8	6.3	6.8
60대 이상	6.4	6.8	6.6	6.4	6.7	6.9	7.2	7.1	7.2	7.0	7.1	6.7	6.8

주: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층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표 5-39〉 정주생활기반 부문 직업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직업 구분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주택 상태	교통안전	자연재해 안전	응급차량 접근 용이	범죄 안전	적은 환경오염	정돈된 환경/경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6.2	7.2	7.0	6.9	6.7	6.4	6.8	6.7	6.4	6.5	6.1	6.6	
	전문직	6.1	7.2	6.9	6.7	6.6	6.3	6.9	6.7	6.6	6.6	5.9	6.6	
	서비스/판매직	6.0	6.9	6.8	6.6	6.4	6.3	6.8	6.7	6.5	6.5	6.0	6.5	
	농림어업	6.4	6.5	6.4	6.1	6.6	7.0	7.3	7.1	7.4	7.2	7.0	6.9	
	생산/기능/노무직	5.4	6.5	6.3	6.2	6.1	5.8	6.3	6.2	6.1	6.0	5.6	6.0	
	주부	5.8	7.0	6.5	6.5	6.6	6.4	6.9	7.0	6.8	6.5	6.7	6.1	6.6
	학생	6.5	7.3	7.1	7.4	6.9	6.4	6.9	6.8	6.9	6.2	6.9	6.4	6.8
	퇴직	6.2	7.2	6.9	6.8	6.8	6.4	7.0	6.7	6.7	6.6	6.6	5.7	6.6
	무직 / 기타	5.6	6.6	6.3	6.0	6.0	6.0	6.3	6.2	6.3	5.9	6.2	5.7	6.1

주: '농림어업'이 '사무/관리직'·'전문직'·'서비스/판매직'·'생산/기능/노무직'·'주부'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4. 경제·일자리 부문

- 경제·일자리 부문의 항목은 도시 또는 농어촌에 특화된 항목이 많아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세 항목에 대해서 비교하였으며,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평균 0.3점 높은 만족도로 조사되었다.
 - 읍과 면 지역의 평균 만족도 수준은 같았다.
 - 면 지역은 ‘여성/다문화 일자리’ 항목에서 읍 지역보다 0.3점 높은 점수를, ‘농수산물 직매장 운영 활발’ 항목에서는 0.2점 낮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 부문 내 모든 항목에서 큰 점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직업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자와 학생의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공통으로 조사된 항목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였지만 농어촌에만 조사된 항목까지 같이 고려할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일자리 지원’와 ‘여성/다문화 일자리’ 항목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농수산물 직매장 운영 활발’ 항목에서 학생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직매장 운영이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연령별 평균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부문 내 가장 높은 점수는 50대의 ‘농수산물 직매장 운영 활발’ 항목과 60대 이상의 ‘여성/다문화 일자리’ 항목이었다.
 - 부문내 가장 낮은 점수는 19~29세의 ‘여성/다문화 일자리’ 항목이었다.
 - ‘여성/다문화 일자리’ 항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19~29세와 60대 이상 연령층의 만족도 차이는 1.0점 수준으로 인식 차이가 컸다.

〈표 5-40〉 경제 일자리 부문 지역 유형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지역 구분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농수산물 직매장 운영 활발(농어촌)	여성/다문화 일자리 (농어촌)	농어촌 관광 (도시)	평균
전국	5.3	5.4	5.4	5.6	5.4	5.3	5.4
도동*	도시 지역	5.7	5.6	.	.	5.3	5.6
	농어촌 지역	5.2	5.3	5.3	5.4	.	5.3
읍면	읍 지역	5.2	5.3	5.3	5.7**	.	5.3
	면 지역	5.2	5.4	5.4	5.5**	.	5.3

주: 평균 점수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 (p<0.01) / ** (p<0.05)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표 5-41〉 경제 일자리 부문 연령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연령 구분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농수산물 직매장 운영 활발(농어촌)	여성/다문화 일자리 (농어촌)	농어촌 관광 (도시)	평균
19~29세	5.2	5.3	5.1	5.5	4.8	5.4	5.2
	5.3	5.4	5.3	5.7	5.2	5.2	5.3
40대	5.3	5.3	5.3	5.6	5.2	5.6	5.3
	5.5	5.5	5.5	5.8	5.6	5.6	5.5
60대 이상	5.2	5.4	5.5	5.3	5.8	5.0	5.4

주: 평균 점수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연령별 평균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표 5-42〉 경제 일자리 부문 직업별 응답 비교

(11점 척도)

직업 구분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농수산물 직매장 운영 활발(농어촌)	여성/다문화 일자리 (농어촌)	농어촌 관광 (도시)	평균
직업군	사무/관리직	5.5	5.6	5.5	5.7	5.3	5.6
	전문직	5.5	5.5	5.2	5.7	5.5	5.4
	서비스/판매직	5.2	5.1	5.2	5.5	5.3	4.7
	농림어업	5.5	5.7	6.0	5.8	6.2	4.0
	생산/기능/노무직	5.2	5.3	5.2	5.1	4.9	5.9
	주부	5.1	5.3	5.3	5.2	5.2	5.1
	학생	5.7	5.8	5.5	6.6	5.4	4.6
	퇴직	4.8	4.7	4.8	4.9	4.8	4.8
	무직 / 기타	4.6	4.8	4.8	5.3	4.8	4.4

주: 평균 점수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직업별 평균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5. 정책 부문별 중요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7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점은 면 지역이 가장 높았고, 읍 지역이 가장 낮았다.
 -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평균점이 0.1점 낮았지만, 면 지역은 동 지역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면>동>읍).
 - 농어촌 지역 중 읍 지역에 비해 면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 부문은 '환경·경관'(7.4)과 주거환경(7.3)이었고, 읍 지역은 '주거환경'(6.6)과 '환경·경관'(6.6), 동 지역은 '보건의료'(7.1)였다. 농어촌 지역에서 '환경·경관'과 '주거환경' 관련 정책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 면 지역에서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던 정책 부문은 '교육'과 '문화·여가'였으며, 읍 지역은 '문화·여가'와 '경제·일자리', 동 지역은 '경제·일자리'였다. 농어촌 지역에서 '문화·여가'를 공통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표 5-43〉 부문별 정책 중요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11점 척도)

지역 구분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주거환경	환경·경관	경제·일자리	평균	
전국	6.9	6.7	6.5	6.5	7.0	7.0	6.5	6.7	
도농	도시 지역	7.1	6.8	6.7	6.8	7.0	6.9	6.4	6.8
	농어촌 지역	6.8	6.6	6.5	6.4	7.0	7.0	6.6	6.7
읍면	읍 지역	6.5	6.3	6.2	6.1	6.6	6.6	6.1	6.3
	면 지역	7.1	7.0	6.8	6.8	7.3	7.4	7.0	7.1

주: 도·농 비교에서 '보건의료', '문화·여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 / 읍·면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로 살펴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도 평가 평균점이 높아졌고, 40대 이하는 차이가 없었다.

- 연령별로 가장 평가 차이가 컸던 부문은 '경제·일자리'로 60대 이상과 40대 평가 차이가 1.6점 이었다. 연령별 최대 차이를 봤을 때 '복지', '환경·경관'은 1.5점 차이, '보건의료', '주거환경'은 1.4점 차이였다.
-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40대의 '경제·일자리'로 5.9점이었다.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60대 이상의 '주거환경'과 '환경·경관'으로 7.8점이었다.

〈표 5-44〉 부문별 정책 중요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11점 척도)

연령 구분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주거환경	환경·경관	경제·일자리	평균	
연령	19~29세	6.4	6.0	6.1	6.0	6.5	6.3	6.0	6.2
	30대	6.3	6.1	6.1	6.1	6.4	6.3	6.1	6.2
	40대	6.3	6.1	6.0	6.0	6.6	6.5	5.9	6.2
	50대	6.9	6.7	6.6	6.5	7.0	7.0	6.4	6.7
	60대 이상	7.7	7.5	7.3	7.3	7.8	7.8	7.5	7.5

주: 60대 이상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평균 8.0점으로, 다른 직업군의 평균이 5~6점대인 것을 고려할 때 정책 중요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던 직업군별 정책 부문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환경·경관'으로 8.3점이었고, '주거환경'과 '경제·일자리' 8.2점, '보건의료' 8.0점이 있었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모든 정책 부문에서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 농어촌을 구성하는 핵심 인구로써 농림어업 종사자의 정책 부문별 중요도 평가를 보았을 때, 농어촌은 전반적으로 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좀더 확장해 보면 공공부문의 정책 이외에 민간 영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5-45〉 부문별 정책 중요도 항목의 직업별 비교

(11점 척도)

직업 구분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주거환경	환경·경관	경제·일자리	평균
직업군	사무/ 관리직	6.6	6.3	6.2	6.2	6.7	6.6	6.1	6.4
	전문직	6.7	6.5	6.5	6.3	6.9	6.8	6.2	6.6
	서비스/판매직	6.8	6.6	6.4	6.4	6.9	6.8	6.4	6.6
	농림어업	8.0	7.9	7.7	7.8	8.2	8.3	8.2	8.0
	생산/기능/ 노무직	6.0	5.8	5.7	5.7	6.1	6.0	5.7	5.9
	주부	6.9	6.7	6.6	6.4	7.1	7.1	6.4	6.7
	학생	6.9	6.4	6.3	6.3	6.9	6.4	6.4	6.5
	퇴직	6.8	6.6	6.2	6.1	6.9	6.8	5.8	6.4
	무직 / 기타	6.3	6.0	5.9	5.8	6.3	6.2	5.7	6.0

주: '농림어업'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

출처: 2021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6

결론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요약

1.1. 전반적인 만족도

-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은 농어촌 지역이 높았지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시·군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 주민들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 2020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지만 도시와 농어촌의 만족도가 교차되지는 않았다.
 - 이번 조사에서 신규로 추가된 ‘주관적 건강 인식 정도’와 ‘주관적 삶의 질 향상 인식 정도’는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더 높은 만족도로 조사되었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평가가 높았다.
 - 마을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이웃과 관계는 2020년 조사 결과에 비해 도농 차이가 다소 줄었지만,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정도에서는 차이가 늘었다.

-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항목인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 존재 여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 높은 평가를 하였다.
-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농어촌 지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환경보전이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에는 도시 지역 주민이 더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 불참과 참여로 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 항목은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참여 수준이 높게 나왔지만,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항목에서는 도시 지역의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은 생업 또는 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만 환경과 기후 관련 목적을 가진 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대 전략별 만족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대 전략별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모든 부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어촌을 대상으로 조사한 4대 전략 부문 34개 세부 항목 중 과년도와 비교 가능한 32개 항목에서 만족도는 증가하였고, 과년도와 도·농 비교가 가능한 29개 모든 항목에서 차이 또한 줄어들었다.
 - 비교 가능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증가하고 도·농 차이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020년도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모든 항목 중 작년 조사에 이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

인 항목은 교육·문화 부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보건·복지 부문의 ‘분만의료 서비스’, 경제·일자리 부문의 ‘소득 기회’, 교육·문화 부문의 ‘문화 공동체 활동’이었다.

- 총 34개 항목 중 만족도 하위 10개 항목은 교육·문화 부문 5개, 경제·일자리 부문 4개, 보건·복지 부문 1개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만족도 격차가 1.2점으로 가장 컸다.

- 과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평가가 크게 낮았던 부문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문화 부문의 만족도 격차는 1.0점으로, 문화·여가 시설과 프로그램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 교육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모두 0.9점의 차이를 보이며 교육 전반에 대한 여건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정주기반 부문의 만족도 격차는 0.7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평가가 도시 주민에 비해 낮았다.

- 그중 대중교통의 격차가 1.6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농어촌의 저밀도 인구 환경에 적합한 교통정책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생활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항목에서 1.3점 차이가 있었는데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사회서비스가 충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일자리 부문은 4대 전략별 만족도 중 가장 낮았지만 도농 차이는 가장 작았다.

- ‘소득 기회’ 항목이 부문 내에서 가장 도농 차이가 컸다.

1.3. 농어촌 삶의 질 관련 개별 정책에 대한 조사

○ 농어촌 교통 여건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알고 있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이 더 많았다.

- 교통 여건 취약지역에 주민들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고 있으며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높았다.
- 중형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기존의 노선버스나 콜택시가 운영되던 방식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알고 있으며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농어촌이 도시 지역보다 높았다.

○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만족도는 '통학수단 만족도'와 '통학안정성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이 높았지만, '통학시간 만족도'와 '통학여건 만족도'는 도시 지역이 더 높았다.

- 자녀가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은 거주 읍·면·동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통학 수단은 도보나 자전거가 가장 많았으며 자가차량 또는 이웃 카풀, 통학버스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 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15분 미만이 약 50%, 15~29분이 약 25%를 차지했다.
- 학교 교육 여건의 문제점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려우며 방과후교육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 도시와 농어촌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및 통합교육 관련 조사 결과는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선택되었다.

- 읍·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 여건 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역형 초·중 통합 전환', '인근 지역 내 도시 수준 학교로 현대화하여 통폐합', '현재 학교를 유지하며 리모

텔링’, ‘고학년생 거점 초등학교 선정 통합 교육’, ‘고학년생 거점형 초·중 연계통합교육 실시’ 등의 선택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 학교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학교도서관 확대·개방’, ‘아동 및 학생 돌봄센터’, ‘학생·청소년 생활편의시설’, ‘평생교육 활동 공간’, ‘공동체 조성 여가활동 공간’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도서관 확대·개방’을 도시 지역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 도시와 농어촌의 정주 여건의 만족도 격차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격차가 심한 분야부터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삶의 질 향상 4대 전략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으며, 거주하는 마을과 시·군 지역의 발전 전망 또한 낮았다.
- 보건·복지 부문은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농어촌과 도시 지역에서 가장 큰 만족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문 내 가장 큰 도·농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1.8점), 진료과목의 다양성(1.7점), 의료서비스 수준(1.5점), 의료시설 접근성(1.4점), 응급의료 서비스(1.4) 등 의료 관련 전 항목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이 도시에 비해 가장 낮게 만족도를 평가한 항목은 대중교통의 편이성(1.6점)이었으며, 교육·문화 부문의 문화·여가 시설(1.1점), 문화·여가 프로그램(1.0점)이었다.
- 가장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크다고 판명된 의료 부문과 대중교통, 그리고 문화·여가 관련 정주 여건 개선 정책 수립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던 만족도가 올해 조사에서 회복된 것으로 나

타났는데 COVID-19 등 사회적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여건이 만족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만족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농어촌을 읍·면 등 행정구역 구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인구학적 구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농어촌 지역사회는 농림어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어업 이외에 다른 직업군의 정주여건도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농어촌에서 젊은 인구층의 이탈과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는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에 대해서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지역의 적정 인구 유지는 생활 편의성과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된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 도시 지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더 진행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파악을 위해 고령자 중심의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지역사회를 위해 주목 받고 있는 청년 귀농·귀촌자 유입과 정착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일자리와 출산·영유아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 정주 만족도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사업 추진에 있어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 록 A

2021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 처리 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 김태완 전문연구원(061-820-2149)

*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조직입니다.

LOC	귀하께서는 어느 광역시도에 거주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LOC2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① 동 지역 ② 읍 지역 ③ 면 지역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AGE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만 19세 미만 면접 중단 만()세 (※ 만 19세 이상만 응답)

Q01.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 읍/면/동 () 리(행정리)

Q02. 귀하께서 현재 마을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총

--	--

 년

Q03. [전반적인 만족도]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나는 지금 행복하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나는 지금 건강하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나는 지금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6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04. [공동체 및 지역사회] 다음은 공동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마을'이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리(행정리)'범위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낌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시·군 또는 읍·면)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낌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이웃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느낌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자신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낙심하여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시·군 또는 읍·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Q05.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활동(행사·모임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1) 전혀 참여 안 한다 2)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3)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4)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Q06. 선생님은 지역의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2) 참석에 관해 생각해본 적 없다
 3) 참여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석한다 4)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5)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꺼이 참석한다

- Q07. 다음은 살고 계신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보건·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과목이 다양하다.	0--1--2--3--4--5--6--7--8--9--10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양호하다.	0--1--2--3--4--5--6--7--8--9--10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아동의 양육·돌봄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여성 및 다문화 주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0--1--2--3--4--5--6--7--8--9--10	
(농어업종사자만 설문) 농기계·어선 사고 등 농어작업 재해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0--1--2--3--4--5--6--7--8--9--10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교육 문화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0--1--2--3--4--5--6--7--8--9--10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좋은 교육(방과후 학교, 사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0--1--2--3--4--5--6--7--8--9--10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하다.	0--1--2--3--4--5--6--7--8--9--10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0--1--2--3--4--5--6--7--8--9--10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0--1--2--3--4--5--6--7--8--9--10
	동호회, 소모임 등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0--1--2--3--4--5--6--7--8--9--10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정주 기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0--1--2--3--4--5--6--7--8--9--10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0--1--2--3--4--5--6--7--8--9--10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0--1--2--3--4--5--6--7--8--9--10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0--1--2--3--4--5--6--7--8--9--10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0--1--2--3--4--5--6--7--8--9--10
	마을 혹은 거주지 주변이 태풍,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다.	0--1--2--3--4--5--6--7--8--9--10
	마을 진입로와 마을안길이 소방차, 앰بول런스 등 응급차량이 접근하기 용이하다.	0--1--2--3--4--5--6--7--8--9--10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0--1--2--3--4--5--6--7--8--9--10
	쓰레기, 분뇨, 폐수,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적다.	0--1--2--3--4--5--6--7--8--9--10
	마을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0--1--2--3--4--5--6--7--8--9--10
지역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비용 절감 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0--1--2--3--4--5--6--7--8--9--10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경제·일자리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0--1--2--3--4--5--6--7--8--9--10
	최근 3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0--1--2--3--4--5--6--7--8--9--10
	(농촌지역만 설문) 특산품이나 농수산물 가공 판매, 직매장 운영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도시지역만 설문) 농어촌 지역에 즐길 수 있는 관광거리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농촌 체험,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맛집), 지역 축제 등)	0--1--2--3--4--5--6--7--8--9--10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0--1--2--3--4--5--6--7--8--9--10
	(농촌지역만 설문) 여성 농업인 및 다문화 주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0--1--2--3--4--5--6--7--8--9--10

Q08. 다음의 정책부문 중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중요하지 않다 ← 보통 → 중요하다
[보건의료] 필요할 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0--1--2--3--4--5--6--7--8--9--10
[복지] 영유아, 노인, 취약계층이 적절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0--1--2--3--4--5--6--7--8--9--10
[교육]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	0--1--2--3--4--5--6--7--8--9--10
[문화·여가] 적절한 수준의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0--1--2--3--4--5--6--7--8--9--10
[주거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생활 여건	0--1--2--3--4--5--6--7--8--9--10
[환경·경관]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된 환경 및 경관 여건	0--1--2--3--4--5--6--7--8--9--10
[경제·일자리] 적절한 소득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	0--1--2--3--4--5--6--7--8--9--10

Q09. (특광역시 동지역 거주자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시·군과 함께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잘 모른다 2) 알고 있지만 이용 경험은 없다 3) 알고 있고 이용 경험이 있다

Q10. (특광역시 동지역 거주자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시·군과 함께 교통취약지역의 대중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형버스·승합차 등을 이용해 기존의 노선버스나 콜택시 같은 방식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잘 모른다 2) 알고 있지만 이용 경험은 없다 3) 알고 있고 이용 경험이 있다

Q11. 귀하는 영유아보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혹은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복수 응답)

- 1) 없다 **☞ Q18번 문항으로**
 2) 영유아 보육기관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 **☞ Q11-1번 문항으로**
 3)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 **☞ Q11-1번 문항으로**

Q11-1. 영유아보육기관 혹은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수 () 명

※ 귀하의 영유아보육기관 혹은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별로 응답 부탁드립니다.

Q12. 귀하의 자녀의 소속 보육기관/학교, 집에서 자녀 학교의 위치를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자녀의 소속 보육기관 또는 학교				집에서 자녀 보육기관/학교의 위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행정리 내	같은 읍면동 내	인접한 읍면동	같은 시군의 면 읍면동	다른 시군
첫째	1	2	3	4	1	2	3	4	5
둘째	1	2	3	4	1	2	3	4	5
셋째	1	2	3	4	1	2	3	4	5
넷째	1	2	3	4	1	2	3	4	5
다섯째	1	2	3	4	1	2	3	4	5

Q13. 귀하의 자녀의 주요 통학수단과 통학수단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자녀의 통학수단						자녀 통학수단 만족도			
	도보/ 자전거	자가차량/ 아웃 카풀	택시	버스/ 지하철	통학버스/ 학교제공 수단	기타	불만족	← 보통 →	만족	
첫째	1	2	3	4	5	6	0-1-2-3-4-5-6-7-8-9-10			
둘째	1	2	3	4	5	6	0-1-2-3-4-5-6-7-8-9-10			
셋째	1	2	3	4	5	6	0-1-2-3-4-5-6-7-8-9-10			
넷째	1	2	3	4	5	6	0-1-2-3-4-5-6-7-8-9-10			
다섯째	1	2	3	4	5	6	0-1-2-3-4-5-6-7-8-9-10			

Q13-1. (Q13번에서 5. 통학버스/학교 제공 통학수단 응답의 경우) 자녀가 집에서 통학차량 승하차 지점까지 가는데 도보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자녀	통학차량 승하차 지점까지 소요 시간 (도보로)				
	5분 이내	5~10분 이내	10~15분 이내	15~20분 이내	20분 이상
첫째	1	2	3	4	5
둘째	1	2	3	4	5
셋째	1	2	3	4	5
넷째	1	2	3	4	5
다섯째	1	2	3	4	5

Q14. 자녀가 통학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편도 기준) 통학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자녀의 통학시간						자녀의 통학시간 만족도				
	15분 미만	15분~29분	30분~44분	45분~59분	60분~89분	90분 이상	불만족	←	보통	→	만족
첫째	1	2	3	4	5	6	0--1--2--3--4--5--6--7--8--9--10				
둘째	1	2	3	4	5	6	0--1--2--3--4--5--6--7--8--9--10				
셋째	1	2	3	4	5	6	0--1--2--3--4--5--6--7--8--9--10				
넷째	1	2	3	4	5	6	0--1--2--3--4--5--6--7--8--9--10				
다섯째	1	2	3	4	5	6	0--1--2--3--4--5--6--7--8--9--10				

Q15. 귀하의 자녀의 통학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녀	통학의 안전성				
	불만족	←	보통	→	만족
첫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둘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셋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넷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섯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16. 귀하께서는 자녀의 전반적인 통학 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녀	자녀의 전반적인 통학 여건 만족도																				
	불만족	←		보통		→		만족													
첫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둘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셋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넷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섯째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17. (Q11번에서 자녀가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귀하의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육 여건에 대한 문
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집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멀다
- 2) 질 좋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 3) 학교 건물이 오래되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 4) 방과후교육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 5) 중학교 통학 환경이 어렵다
- 6) 고등학교 진학 시, 학생 수 부족으로 대입 여건에서 너무 불리하다
- 7) 학생수가 너무 적어 자녀의 사회성과 친구 형성이 부족하다
- 8) 학생들의 수준이나 질이 떨어진다
- 9) 기타()

※ 이하 모든 응답자

Q18. 귀하께서는 읍면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육 여건의 변화를 위해 다음 중 어떤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대안)

<p>1) 고학년의 사회성 발달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의 모든 고학년(5-6학년)학생은 거점 초등학교를 선정해 한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1-4학년은 기존 학교에서 수업)</p>	<p>2) 사회성 발달 및 교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의 모든 고학년(5-6학년)학생은 중심지에 위치한 중학교 한 곳에서 초·중 통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거점형 초·중연계 통합교육)</p>
<p>3) 학생 수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지역형 초·중통합학교(지역에 동시 운영 될 경우)로 전환하도록 한다.</p>	<p>4)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 중학교는 중학교끼리 인근지역 내 학교와 도시 수준 학교로 현대화하여 통폐합한다.</p>
<p>5) 현재 학교를 유지하며 기존 학교들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한다 (학생수 감소의 경우에도 유지)</p>	<p>6) 기타 ()</p>

Q19. 학생수 감소로 인해 유희시설(필요시 증축 확장)이 발생한 학교 시설 중 일부를 지역사회 아동 및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한다면, 다음 중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학교도서관의 확대와 방과후 주민 개방
- 2) 야간까지 운영하는 아동 및 학생 돌봄센터
- 3) 현 거주지역에 없는 학생 및 청소년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운영
(서점, 문구점, 순회상담실, 컴퓨터게임방, 독서실, 스포츠활동 공간 등)
- 4) 주민을 위한 영농 교육 및 순회 창업 상담 공간
- 5)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 공간(컴퓨터교육, 한글 또는 영어교육 등)
- 6)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여가 활동 공간(취미, 예술, 악기 공연 등)
- 7) 지역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주간보호 및 여가시설)
- 8) 기타()

응답자 특성

- DQ01.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다가? 1) 기혼 2) 미혼
- DQ0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4)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5) 대학원 이상
- DQ03. 현재 귀하는 어떤 일(직업)을 하십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을 답해주시시오.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1) 주부 12) 학생
 13) 퇴직 14) 무직 15) 기타()
- DQ04. 귀댁(본인 포함)에 농축산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텃밭 등 취미농 제외)
 1) 있다 2) 없다
- DQ05. 귀댁의 주택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단독주택 2) 다가구주택(연립/빌라) 3) 아파트
 4) 비거주용 건물 5) 기타()
- DQ06. 귀댁의 주택 거주(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자가 2) 전·월세 3) 무상 4) 기타()
- DQ07. 귀댁에서 동거하는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독신 가구 (미혼) 2) 1인 가구 (기혼) 3) 기타 ☞ DQ07-1로 이동
- DQ07-1. 귀댁에 동거하시는 다른 가구원을 응답해주시시오.
- | 관계 | 증조부모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형제자매 |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 | 기타 |
|----|------|-----|----|-----|------|----|-----|------|----|
| 인원 | | | | | | | | | |
- ※세대구분만 함. (예: 자녀1의 아들1, 자녀2의 딸1 ☞ 자녀 2명, 손자녀 2명)
- DQ08. 귀댁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1) 1,000만원 미만 2) 1,000만원~1,999만원 3) 2,000만원~2,999만원
 4) 3,000만원~3,999만원 5) 4,000만원~4,999만원 6) 5,000만원~6,999만원
 7) 7,000만원~9,999만원 8) 1억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B

과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2014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7	5.2	-2.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9	4.8	-1.1
	취약계층 복지 지원	5.7	5.2	-0.5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7	5.3	-1.4
	(평균)	6.5	5.1	-1.4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4.8	-1.7
	평생학습 기회	5.8	4.2	-1.6
	(평균)	6.2	4.5	-1.7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7	5.3	-1.4
	생활 인프라	7.3	4.5	-2.8
	생활 서비스	7.5	4.5	-3.0
	대중교통	7.6	4.9	-2.7
	(평균)	7.3	4.8	-2.5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4	3.7	-1.7
	경제여건 향상	5.1	4.0	-1.1
	농외소득	4.4	3.9	-0.5
	(평균)	5.0	3.9	-1.1
문화 · 여가	여가시설	6.0	3.3	-2.7
	여가 프로그램	5.9	2.5	-3.4
	(평균)	6.0	2.9	-3.1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3	5.2	-1.1
	적은 환경오염	6.4	5.4	-1.0
	(평균)	6.4	5.3	-1.1
안전	범죄 안전	6.4	6.1	-0.3
	교통 안전	6.2	5.7	-0.5
	자연재해 안전	6.9	5.8	-1.1
	(평균)	6.5	5.9	-0.6
〈표본수〉		〈610명〉	〈1,168명〉	-

〈2015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6	6.2	-1.4
	의료 서비스 수준	7.1	5.8	-1.3
	아동 양육·보호 지원	6.5	5.6	-0.9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6.0	-0.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9	-1.1
	(평균)	6.9	5.9	-1.0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8	5.7	-1.1
	방과 후 교육 기회	6.8	5.5	-1.3
	평생학습 기회	6.5	5.3	-1.2
	(평균)	6.7	5.5	-1.2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9	6.5	-0.4
	생활 인프라	7.1	5.8	-1.3
	생활 서비스	7.4	6.1	-1.3
	대중교통	7.3	5.7	-1.6
	(평균)	7.2	6.0	-1.2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6	4.6	-1.0
	경제여건 향상	5.7	4.9	-0.8
	농외소득	5.4	4.8	-0.6
	(평균)	5.6	4.8	-0.8
문화 · 여가	여가시설	6.3	4.8	-1.5
	여가프로그램	6.2	4.6	-1.6
	(평균)	6.3	4.7	-1.6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7	6.3	-0.4
	에너지 비용 절감	6.0	5.0	-1.0
	적은 환경오염	6.5	6.4	-0.1
	(평균)	6.4	5.9	-0.5
안전	범죄 안전	6.5	6.7	0.2
	교통 안전	6.4	6.3	-0.1
	자연재해 안전	7.2	6.8	-0.4
	(평균)	6.7	6.6	-0.1
〈표본수〉		〈1,269명〉	〈1,775명〉	-

〈2016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8	6.4	-1.4
	의료 서비스 수준	7.4	5.9	-1.5
	아동 양육·보호 지원	6.6	5.5	-1.1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6.0	-0.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2	6.0	-1.2
	(평균)	7.1	6.0	-1.1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8	5.6	-1.2
	방과 후 교육 기회	6.9	5.3	-1.6
	평생학습 기회	6.6	5.2	-1.4
	(평균)	6.8	5.4	-1.4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8	6.4	-0.4
	생활 인프라	7.3	6.1	-1.2
	생활 서비스	7.5	6.0	-1.5
	대중교통	7.6	5.8	-1.8
	통신 시설	7.8	6.7	-1.1
	(평균)	7.4	6.2	-1.2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9	4.8	-1.1
	경제여건 향상	5.9	4.9	-1.0
	농외소득	5.4	4.8	-0.6
	(평균)	5.7	4.8	-0.9
문화 · 여가	여가시설	6.6	4.8	-1.8
	여가프로그램	6.5	4.5	-2.0
	(평균)	6.6	4.7	-1.9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6	6.2	-0.4
	에너지 비용 절감	6.1	5.1	-1.0
	적은 환경오염	6.5	6.2	-0.3
	(평균)	6.4	5.8	-0.6
안전	범죄 안전	6.8	6.7	-0.1
	교통 안전	6.6	6.4	-0.2
	자연재해 안전	7.3	7.0	-0.3
	화재 발생 대응	7.1	6.4	-0.7
	농작업 안전	6.7	5.9	-0.8
	(평균)	6.9	6.5	-0.4
〈표본수〉		〈917명〉	〈1,950명〉	-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6	6.5	-1.1
	의료 서비스 수준	7.3	5.9	-1.4
	아동 양육·보호 지원	6.7	5.7	-1.0
	취약계층 복지 지원	6.5	6.0	-0.5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1	6.0	-1.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6	5.8	-0.8
	(평균)	7.0	6.0	-1.0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8	5.7	-1.1
	방과 후 교육 기회	6.9	5.6	-1.3
	평생학습 기회	6.6	5.5	-1.1
	시설 및 교육 필요장비	7.0	6.3	-0.7
	학생 통학 어려움	7.1	6.2	-0.9
	(평균)	6.9	5.9	-1.0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8	6.6	-0.2
	생활 인프라	7.2	6.3	-0.9
	생활 서비스	7.4	6.4	-1.0
	대중교통	7.3	6.0	-1.3
	통신 시설	7.7	6.9	-0.8
	공동체 활동	5.7	5.8	0.1
	(평균)	7.0	6.3	-0.7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6.0	5.0	-1.0
	경제여건 향상	6.0	5.3	-0.7
	농외소득	5.8	5.0	-0.8
	(평균)	5.9	5.1	-0.8
문화 · 여가	여가시설	6.7	5.1	-1.6
	여가 프로그램	6.6	4.8	-1.8
	향토문화 향유	6.3	5.2	-1.1
	(평균)	6.5	5.0	-1.5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7	6.3	-0.4
	에너지 비용 절감	6.3	5.3	-1.0
	적은 환경오염	6.5	6.2	-0.3
	(평균)	6.5	5.9	-0.6
안전	범죄 안전	6.8	6.8	0.0
	교통 안전	6.6	6.5	-0.1
	자연재해 안전	7.2	7.0	-0.2
	화재 발생 대응	7.2	6.7	-0.5
	농작업 안전	7.2	6.2	-1.0
	(평균)	7.0	6.6	-0.4
〈표본수〉		〈1,039명〉	〈1,991명〉	-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3	6.1	-1.2
	의료 서비스 수준	7.1	5.6	-1.5
	아동 양육·보호 지원	6.6	5.6	-1.0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5.7	-0.7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5	-1.5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4	5.6	-0.8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6.5	5.1	-1.4
	(평균)	6.8	5.6	-1.2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5.7	-0.8
	방과 후 교육 기회	6.5	5.7	-0.8
	평생학습 기회	6.0	5.3	-0.7
	시설 및 교육 필요장비(평균 산출시 제외)	6.5	5.8	-0.7
	학생 통학 어려움(평균 산출시 제외)	6.8	5.8	-1.0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6.0	5.4	-0.6
	(평균)	6.3	5.5	-0.8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6	6.6	0.0
	생활 인프라	7.0	6.3	-0.7
	생활 서비스	7.1	6.2	-0.9
	대중교통	7.1	5.7	-1.4
	통신 시설	7.5	6.7	-0.8
	공동체 활동	6.2	5.9	-0.3
	(평균)	6.9	6.2	-0.7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6	5.1	-0.5
	경제여건 향상	5.6	5.2	-0.4
	농외소득	-	5.2	-
	일자리 지원	5.6	5.1	-0.5
	청년 일자리 지원	5.4	5.0	-0.4
	(평균)	5.6	5.1	-0.5
문화 · 여가	여가시설	6.2	5.4	-0.8
	여가프로그램	6.1	5.3	-0.8
	향토문화 향유	6.2	5.6	-0.6
	문화 공동체 활동	5.6	5.1	-0.5
	(평균)	6.0	5.4	-0.6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4	6.1	-0.3
	에너지 비용 절감	5.9	5.6	-0.3
	적은 환경오염	6.3	5.9	-0.4
	(평균)	6.2	5.9	-0.3
안전	범죄 안전	6.7	6.6	-0.1
	교통 안전	6.4	6.3	-0.1
	자연재해 안전	7.1	6.6	-0.5
	화재 발생 대응	7.0	6.3	-0.7
	농작업 안전	6.7	6.1	-0.6
	안전시설 및 설비	6.7	6.0	-0.7
	(평균)	6.8	6.3	-0.5
〈표본수〉		〈949명〉	〈2,203명〉	-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4	6.1	-1.3
	의료 서비스 수준	7.0	5.6	-1.4
	아동 양육·보호 지원	6.4	5.6	-0.9
	취약계층 복지 지원	6.2	5.6	-0.6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8	5.6	-1.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2	5.5	-0.7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6.4	5.1	-1.3
	(평균)	6.6	5.6	-1.1
교육	학교 교육 여건	6.5	5.8	-0.7
	방과 후 교육 기회	6.4	5.7	-0.7
	평생학습 기회	6.0	5.4	-0.6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8	5.2	-0.6
	(평균)	6.2	5.5	-0.7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6.5	6.6	0.1
	생활 인프라	7.0	6.3	-0.6
	생활 서비스	7.0	6.1	-1.0
	대중 교통	7.0	5.7	-1.3
	통신 시설	7.5	6.7	-0.9
	공동체 활동	6.0	5.9	-0.1
	(평균)	6.8	6.2	-0.6
경제활동 · 일자리	소득 기회	5.1	5.1	0.0
	경제여건 향상	5.0	5.1	0.1
	농외소득	-	5.1	-
	일자리 지원	5.2	5.0	-0.2
	청년 일자리 지원	-	-	-
	(평균)	5.1	5.1	0.0
문화 · 여가	여가시설	6.1	5.3	-0.8
	여가프로그램	5.9	5.1	-0.8
	향토문화 향유	5.9	5.6	-0.4
	문화 공동체 활동	5.3	5.1	-0.2
	(평균)	5.8	5.3	-0.5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6.3	6.3	0.1
	에너지 비용 절감	5.7	5.4	-0.3
	적은 환경오염	6.1	6.0	-0.1
	(평균)	6.0	5.9	-0.1
안전	범죄 안전	6.5	6.8	0.3
	교통 안전	6.1	6.3	0.2
	자연재해 안전	7.0	6.7	-0.2
	화재 발생 대응	-	-	-
	안전시설 및 설비	-	-	-
	농작업 안전	-	6.3	-
	(평균)	6.5	6.6	0.0
〈표본수〉		〈719명〉	〈2,344명〉	-

〈2020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4	5.7	-1.7
	의료 서비스 범위	7.1	5.0	-2.1
	의료 서비스 수준	6.9	5.1	-1.8
	분만의료 서비스	6.7	4.4	-2.3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2	-1.8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5	5.5	-1.0
	아동 양육·보호 지원	6.3	5.4	-0.9
	취약계층 복지 지원	6.2	5.6	-0.6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만)	-	5.9	-
	(평균)	6.8	5.2	-1.6
교육 · 문화	공교육 수준	6.6	5.2	-1.4
	방과 후 교육 기회	6.5	5.1	-1.4
	평생교육 기회	6.1	4.7	-1.4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6.1	4.7	-1.4
	문화 여가 시설	6.2	4.6	-1.6
	문화 여가 프로그램	6.2	4.4	-1.8
	문화 공동체 활동	5.7	4.7	-1.0
	향토문화 향유	5.7	4.9	-0.8
	(평균)	6.1	4.8	-1.3
정주 기반	대중교통	7.1	5.2	-1.9
	통신시설	7.6	6.1	-1.5
	생활 인프라	7.3	5.9	-1.4
	생활 서비스	7.3	5.6	-1.7
	주택 상태	6.7	5.9	-0.8
	교통안전	6.5	6.0	-0.5
	자연재해 안전	7.0	6.2	-0.8
	범죄 안전	6.7	6.4	-0.3
	적은 환경오염	6.6	6.1	-0.5
	정돈된 환경·경관	6.6	6.2	-0.4
	에너지 비용 절감	6.1	5.4	-0.7
	(평균)	6.9	5.9	-1.0
경제 · 일자리	소득 기회	5.6	4.5	-1.1
	경제여건 향상	5.3	4.6	-0.7
	농외소득(농촌만)	-	5.0	-
	농어촌관광(도시만)	5.2	-	-
	일자리 지원	5.5	4.7	-0.8
	여성·다문화 일자리(농촌만)	-	4.8	-
	(평균)	5.5	4.6	-0.9
〈표본수〉		〈738명〉	〈2,445명〉	-

참고문헌

- 송미령, 김광선, 성주인, 채종현, 최용욱. (201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채종현. (20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노승철, 권인혜, 한태녕. (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 박지숙.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 (20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석. (20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9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석.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0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진흥청. (2017).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농촌진흥청. (2018). 『2018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농촌진흥청. (2019). 『201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농촌진흥청. (2020). 『2020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통계청. (2019). 『국민 삶의 질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20). 『국민 삶의 질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국행정연구원. (2019).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OECD. (2015).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Better Life Initiative.

참고 웹사이트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www.index.go.kr/unify/main.do>